발행인 이연택 · 편집인 문병호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2년 (단기 4345년) 6월 5일 (화)

http://dongguk.or.kr

제226호

東大 이대로는 안된다

대학평가 순위 쇼크 …"경영 컨설팅업체 진단부터" 의견까지

본회 상임위원회 긴급 간담회

'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논의

지난 5월29일 발표된 조선일보의 아 시아 대학평가 보도가 동문사회를 강 타했다. 그동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만 알았던 대학평가에서의 모교 순위 가 이번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국내외 신생대학들에 게 조차 밀리는 상상도 못한 결과로 나오자 동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특 단의 대책 강구'와 '학교법인, 학교, 총동창회간 총력 공조'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학평가는 1994년 중앙일보를 시작 으로 몇몇 언론기관 등에서 매년 시행 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동문사회가 조 직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 음이다.

법인 · 학교 · 동창회 공동 책임

총동창회는 동문사회의 들끓는 여론 에 따라 6월5일 오전 상임위원회 긴급 조찬 간담회를 열어 총동창회의 입장 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 으로 다룰 TF팀 구성에 착수했다.

T/F팀은 홍보분과 담당부회장을 위 원장으로 하여 △대학평가관련 동문 사회의 의견 수렴 △순위향상을 위한 총동창회 기여방안 모색 △학교법 인 · 학교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 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동창회는 TF팀의 논의와 보고를 토대로 장학사업 등을 포함해 대학평 가 순위향상에 총동창회 차원에서 기

2009 2010 2011 2012 학계평가, 졸업생 평판도 제외

2012년 조선일보-QS 평가 결과(경주 포함)

여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 지 전면 재점검해 총동창회만으로 즉 각 실천 가능한 일은 바로 실행에 들 어가고 학교, 학교법인에 건의하거나 공조해야할 사안은 TF팀에서 사안별 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정리한 뒤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부진 교수 실명 공개를"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이번 조선 일보 평가에서는 앞으로도 대학의 평 가 순위를 높이는 결정적 열쇠가 교수

참석자들은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교수진의 경쟁력인 만큼 연구실적 향 상에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수 임용제도 개혁, 사기진작, 평가제도 개선 등의 지원책과 함께 연구 실적이 부진한 교수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등의 '채찍'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차원 에서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전혀 없 는 교수 명단을 총동창회보에 실명 공 개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했다.

들의 연구능력 향상에 있다는 학교 측

의 설명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서 총동

창회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

고 모교에 대한 지원활동도 여기에 초

점을 맞추어

나가기로 합

이와 관련

모교 교수

연구실적 부

진에 대한

여러 측면에

서의 현실

진단과 솔직

한 문제 지

적, 다른 대

학과 비교,

개선 방향등

을 놓고 집

중 토론이 있

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연택 회장을 비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순위	대학	아시아순위
1	서울대	4(6)
2	카이스트	7(11)
3	포스텍	9(12)
4	연세대	12(18)
5	고려대	21(26)
6	성균관대	24(27)
7	한양대	33(44)
8	이화여대	40(45)
9	경희대	41(42)
10	서강대	51(55)
11	부산대	63(66)
12	인하대	68(87)
13	한국외대	69(111)
14	경북대	70(61)
15	중앙대	82(93)
16	서울시립대	83(132)
17	가 톨 릭대	94(89)
18	울산대	99(100)
19	한림대	100(116)
20	아주대	102(103)
26	동국대	128(130)

※괄호 안은 작년 순위

롯 김동정, 원용선 상임고문과 송석환 수석부회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석해 윤재웅 모교 전략홍보실장으로부터 조선일보 평가보도 전말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교 환했다.

동창회 협력방안 모색 계기로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이 "현실을 그대 로 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동창회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라는 데 의견을 같 이 하고 '학교 법인과 학교, 총동창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나아가 유기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아시아 128위, 국내 26위라는 모교측의 설명을 듣고 나서 "교수임용에서부터 연구업적 평 가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학교법인이나 학교 당국, 총동창회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계속)

대학평가에 나타난 동국의 현주소는 …

종합순위, 평가기관 달라도 큰 변동 없어 '구조적 한계' 노출

대학평가에서 모교 동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대학평가를 발표하는 언론사 는 3곳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1994년 부터 대학평가를 시작해 19년째 이어 오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있는 QS 아시아 대학평가는 2009년 부터 도입되었다. 경향신문은 2010년 부터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를 해오 고 있다.

금년도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 퍼스를 분리한 이후 2010년 17위, 평가에서 모교 순위는 국내 20위권, 아시아 100위권밖이었다. 지난 2011 년에 비해 아시아 순위는 2계단 오른 128위였지만, 국내 순위는 3계단이나 뒤진 26위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중 앙일보에서 서울과 경주캠퍼스를 통 합해 평가했을 때의 순위와 큰 차이 가 없다.

모교는 중앙일보 평가에서 경주캠

2011년 14위가 되었지만 분리 이전에 는 28위 안팎이었다. 또 경향신문의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는 2010년 10위를 차지 했으나 2011년에는 대학 서열조장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어 각 지표별 순위만 발표되었다. 그러나 조사기관이나 언론사별로 지표는 달 라도 모교의 종합순위는 엇비슷한 것 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국가족 합심 새 출발하는 전기되어야"

대학평가 결과를 보는 시각

상임위원회 긴급 간담회

참석자 명단

김동정 원용선(이상 상임고문) 이연택(회장) 송석환(수석부회장) 고용규 김영순 김진문 김진억 김환배 문병호 박동열 법 타 연기영 이재형 전종무(이상 상임위원)

◆ 일 시: 2012년 6월5일 07:30 ◆ 장 소: 총동창회 사무처 회의실

▲이연택회장=지난 5월29일 발표된 조선 일보의 아시아대학평가 발표를 보고 여러 동 문들로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문병호 홍보담당 부회장도 "우리 동문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이 문제는 우리 총동창회보 에 공론화해서 개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총동창회보 발행을 앞두고 1 차적으로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것 이 좋겠다"고 건의해왔다. 이에 우리 총동창 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광범위하게 의견들을 결집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됐다. 허심탄회하게 건설적인 이 야기를 모아주길 바란다.

▲문병호=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 법인(시설이나 재정 등), 학교당국(학교 경영, 관리, 교수 연구실적 등), 교수(연구, 강의, 사회활동 등), 학생(취업, 국가고시 합격자, 사회적 평판)부분이 그것이다. 아시아 대학 평가는 연구중심으로 이루어 져서, 우리대학 보다 연륜도 짧고 여러 가지로 우리대학보다 못하다는 대학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총동창회가 그동안 학교와 협조하며 학교 순위도 높이고 사회적 평판이나 위상을 높이고자 해왔던 여러가지 노력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거 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는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바램이 있다면 불교도 새로워지고, 종단·학교법인이 다 바뀌면서 학교가 면모를 일신하고 총동창회와 학교당국, 교수, 학생들이한마음으로 학교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만들수 있었으면 한다.

해외학회 활동 분위기 조성을

▲연기영=8년동안 학교 교육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 교육중심대학으로 가느냐, 연 구중심대학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임 총장때는 교육중심대학으로 갔다. 대학 원을 폐지하고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운 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갈 수가 없다.

학교 예산만 해도 연구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지 교수만 공격해 서는 안된다. 학계 평가는 해외 학회 활동이 미미한데 외국인 교수들이 '동국대'라는 이름을 기억조차 하겠는가? 학교내의 교수회나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것도 대학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순=교수연구에 있어 기본인 연구기 자재가 모교는 바닥 수준이다. 다른 대학들 을 보면 재단이나 총동창회에서 기자재 등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의료원의 경우는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 같다.

또 교수임용에 있어 특채로 하다보니 우수한 지원이 지원을 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볼일이다. \triangle 정보가 없다 \triangle 줄이 없다 \triangle 정해져 있다 식이어서 지원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

차제에 우리 모교법인도 외국의 신뢰있는 경영컨설팅업체에 의뢰해 객관적 평가를 받 았으면 한다. 몇 년전 대학을 인수한 한 기업 은 외국의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 획기 적 변화를 시도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구조적·총체적 문제점을 조 속히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다.

핵심역량 찾아 '상생의 길' 모색

▲김환배=대학 역량의 총제척 강화와 동 문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된다 고 말했는데 이는 형이상학적 이야기다.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SWAT 기법, 즉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내 Action 고 들었다. 중앙일보 평가처럼 분리,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모교 졸업장이 동문들의 지존심이나 재학생들의 취업때 걸립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총동창회부터 대학평가 향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학교나 법인과 연대할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더불어 총동창회차원에서 모교가 더 이상 제자리걸음을하지 않도록 학교법인에 외부 컨설팅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재형=근본적으로 교수들이 왜 교수직을 택했는가 부터 반문하고 싶다.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로 이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모교 교수들 가운데 100분의 60%만 제대로 연구해도 이런 결과는 안나왔을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고시 등의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우수 신입생은 저절로 입학하게 되어 있다. 사회평판도만 해도 마치모두가 동문들의 책임같지만, 결국은 학교의 평가순위와 평판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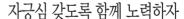
정교수. 연구정진 앞장 아쉬워

▲송석환= "정교수가 되면 힘이 빠져서 연구를 안한다"는 말에 쇼크를 받았다. 그것은 조교수나 부교수때는 승진하기 위해서나 논문을 쓰고, 이제 정교수가 되어 정년보장되었는데 굳이 힘들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로들러 씁쓸하다. 실력있고 경력도 풍부한 정교수들이 조교수나 부교수보다 더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총동창회가 일조했으면 한다.

▲김동정고문=이야기를 듣다보니 교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이보다 총동창회 조직이 잘되어가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우리 총동창회 조직이 규모면이나 재정면에서 파워가 있다면, 학교당국에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종무=모교의 위상측면이나 동문의 자 긍심, 재학생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라도 총 동창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회관이 건립되면 교수나 재학생을 위한 지 원방안이 활성화되어 대학 평가에 긍정적 역 할을 하리라 본다.



▲이연택 회장=조선일보 대학평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총동창회 내부의 TF팀인 대학평가 향상 위원회 를 두는 것으로 하겠다. 이 TF팀은 앞에서 상임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모두 심 도있게 논의하여 주기 바란다.

또 오늘 나온 방안들을 중심으로 액션플랜을 만들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도록 진행할때가 되었다.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대학 순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TF팀을 가동하고 학 교법인에 신뢰도가 높은 컨설팅업체로 부터 모교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자는 의 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간담회를 마무리 하겠다.



대학평가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6월5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학평가 순위 신입생 모집·취업 직결" 역할 분담·전략적 접근 대책 시급

▲법타스님=알고보면 동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법인이나, 또 모교 설립주체인 종단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

또 학교 정책 등이 실패해도 누가 책임지 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공감 하다

이사장이나 총장 혼자서 앞장서고 고삐를 당겨도 대학의 평가에 관한한 교수 집단이 자성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연목구어격이다.

교수 절반 3년간 논문 없다니…

▲박동열="모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 지"생각할수록 분노와 박탈감 뿐이다. 정교 수가운데 3년간 논문 한편도 없는 교수가 절 반 가까이 된다니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그 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미안하지만 자극을 줄 수는 없는가?

▲고용규=서울과 경주캠퍼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반대의견이다. 단기적 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주 plan(행동지침)을 정한다. 학교를 이끌어가는 핵심역량은 교수집단인 것 같다. 교수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지침이 필요하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소그룹 단 위로 교수·동문간 스킨십을 강화하는 가운 데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면 어떨까 싶다.

3주체 공조협의체 만들었으면

▲김진문=누구의 잘못이고 무엇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느냐에 매달리면 좋은 개선 방안이 안 나온다. 3개 주체 (법인, 학교, 총 동창회)가 각자 개선방안을 만들고 공조할수 있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한다. 교수들을 초청해서 대학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하고, 또 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동문들이병원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TF팀 만들어 대응책 논의

▲김진억=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분리, 평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서울이 국내 15위권 내외, 경주가 40위권 내외라

우수 교수 - 연구 여건 - 엄정 평가 강화해야

'2012 아시아 대학 평가'를 보고

최근 조선일보가 '2012년 아시아 대학 평가'를 발표했다. 서울대가 아시이순위 4위를 한 것을 비롯해 포스텍, 카이스트, 연세대 등이 20위권 안에 들었다. 별도 로 국내 대학 20위도 선정했는데 아시아 100대 대학은 물론 국내 20위권에도 동 국대 이름은 없었다. 사회과학·자연과 학・인문학・의학・공학기술・예술 등 분야별 순위에서도 동국대란 이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최 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3대암(위 암, 대장암, 간암) 수술성과가 발표됐는 데 여기서도 동국대 일산병원은 이름에 오르지 못했다. 매년 중앙일보 대학 순위 를 비롯해 여러 평가에서 모교가 전통과 명성에 비해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같은 결과를 보 고 참담하다 못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언제까지 개탄으로 그칠 것인가

새로운 총장이 오거나 신학기, 또는 개교기념일 등 주요 교내외 행사때마다 세계 100대 대학, 국내 대학 5위권 진입 이란 계획들이 발표되지만 역시 언제나 구두탄에 머물고 만다. 대신 이런 씁쓸 하고도 허접한 평가를 받고 자괴감에 빠 진다. 통속적이긴 해도 이런 대학순위 발표가 알게모르게 학교의 네임벨류 형 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재학생과 동 문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도대체 옛날의 명성은 어디 가고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동문이 적지 않다. 물론 평가기준과 방법이 달라서 우리 모교가 소외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그 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학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 란은 변명으로 비칠 뿐, 많은 독자나 국 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의 신 빙성을 따지기 전에 일반 독자나 국민이 그런 것에까지 관대하게 이해하면서 기 사를 읽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다 시말해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것은 학교 위상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우리 달릴때 타대학은 로켓 속도로

한때 동국대는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사학명문이었다. 그런 데 어느때부터인가 해방 후 생긴 일부 후발 사학들에 밀리고 지금은 잿불처럼 존재감도 사그러져가는 형국이다. 서울 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혜택인 오 늘날, 서울의 한 복판에 자리잡은 매머 드 대학 치고 갈수록 뒤처진 이유가 무 엇인가를 곰곰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것인가 를 진단하고 메스를 대야 한다. 속도감 이 강조되는 오늘날, 우리는 달려간다고 하지만 타 대학은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우수교수 채용이 개혁 첫 출발

이번 조선일보의 대학평가 기준을 보 면 교수 연구 성과가 절대적 지표로 작 용하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모교의 교수 채용은 해 당학과 교수진에게 상당부분 독립적이 고 자발적 선발 권한이 주어졌다가 최근 에는 학교 당국의 특채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방식이야 어떻든 간 에 우수교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이 상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행여 모교 출신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계보 가 같다고 해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교 수를 선발해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 가 있다.

나아가 아무리 좋은 교수를 채용했다 고 하더라도 그 교수가 정년퇴임할 때까 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도록 제도나 인프라 등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도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입학정원에서 보나 학교의 위치로 보 나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상위권 진입 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보이는 모교가 여 러 후발대학에 한참 밀리고, 교세가 떨 어진다는 것은 되새겨볼 대목이다.

역량 결집과 전략적 선택 중요

교수들의 우수한 논문 발표와 4대 고 시 합격자를 많이 내는 것이 학교 이미 지를 제고시키고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평가받는 기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있는가.

동문들을 만나면 애정어린 격려와 충 고를 보내고 싶어도 이젠 지쳤다고 말한 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방관자의 대오에 서고 만다는 것 이다. 학교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 을 때 동문사회도 지친 모습을 보일 것 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비장 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 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서로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배타적 폐쇄적 아 집에 빠지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전 문가그룹, 사회지도층그룹, 종단과 학교 와 학교법인,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하

는 기구를 만들어 새롭게 출발해야 한 다. 언제는 태스크포스(TF)가 없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다른 때의 위기와는 그 궤가 다르다.

동문 · 재학생 모두가 피해자

모든 사안을 음모적 시각이나 권력투 쟁의 관점으로 보면 해법은 없다. 학교 발전이 더디고, 쌓아올린 전통마저 갉아 먹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자기성찰의 한 과정으로서 현 실태를 냉철하게 돌아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동문사회는 애교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교의 평판이 동문의 사회적 신분을 대신하고, 재학생 사기에 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동문은 모교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숙명적으로 떠안고 산다. 자기냉소와 체념에 빠지기 전에 모교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하 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종단 △학교법 인 △재학생 △동문 △전문가그룹이 머 리를 맞대 3대 명문사학 회복의 길로 나 서야 한다.



이 계 홍(65/69국문)

△본회 홍보위원 △동아일보 문화부차장, 문화일보 사회부장, 서울신문 수석부국장 역임

동창회 첫 공식 대응··· "自省·책임" 목소리도

동대 이대로는 안된다

(1면에서 이어짐)

간담회에서는 또 총장, 이사장의 임 기가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매번 비 슷한 논의를 반복해온 모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새로운 차원의 대안 을 찾아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총동창회가 모교발전에 총력 을 모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법인의 적극 협력자로서 위상을 확실하게 정 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법인・학 교당국·총동창회 특별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는 대학평가에서의 순위가 "재학생들의 사기는 물론 신입생 모집, 졸업생 취업에 즉각적으로 크게 영향 을 주는 만큼 상황개선을 위한 특단대 책을 마련하고 3자간 공조협력을 실천 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더 이상 대학평가가 동국가족 모두에 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진로개척에 멍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평가순위 상향에 노력 집중

국내에서 대학평가가 시작된 것은 근 20년이 가깝지만 그동안 동문들의 반응은 개인의 목소리에 머물러 왔다. 이번에 총동창회 차원에서의 공식 대 책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 문제가 이연택 종동회장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 온 화두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맡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회있을 때 마다 모교의 평가 순위에 대해 지속적 인 관심을 표하고 총동창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총동창회가 평가 순위 상 승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지원을 선정해 역량을 집 중해온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총동창회는 2010년 200명, 2011년 500명이상까지 끌어 올렸다.

2010년에 33명의 논문실적 우수 교 수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도 대학평가 에서 교수연구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을 고려해 첫 시도한 지원활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조선일보 보도 는 동문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총동 창회에는 전국에서 세대와 지역 구분 없이 쏟아지는 울분과 좌절의 목소리 가 줄을 이었다.

총동창회는 이번 조선일보평가 쇼크 가 동국이 처한 현실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동국가족 모두에게 선명하게 각인시켜 한마음으로 다시 뭉쳐 협력 해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선일보 QS '2012 아시아 대학 평가'는 4개 영역 9개 지표를 적용했 다.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영역(비중 60%)은 학계평가(30%)와 교원당 논문 수 (15%), 논문당 피 인용수(15%) △ 교육수준(20%)은 교원과 학생수 △졸 업생 평판도(10%)는 전세계 기업인사 담당자 질문결과 △국제화(10%)는 외

국인 교원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해외 로 나간 교환학생비율,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을 반영했다.

조선일보 평가 학교측 설명 윤재웅 전략홍보실장

이번 '2012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 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는 아시아 128위, 국내대학 26위이다.

평가지표 중 60%가 교수 연구 영 역이다. 이러한 지표하에서는 모교 의 순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 다.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는 않고, 3-4년후에나 효과가 나타 난다. 서울과 경주캠퍼스를 분리해 서 평가를 한다면 2-3년내에 지표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

정년보장받는 교수들의 논문 실적 저조가 걸림돌이다. 우리 대학의 교 수 논문실적이 적고, 심지어는 3년 간 연구논문을 한 편도 발표하지 않 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에서 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학교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대학 역량을 총체적 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강화·동국인의 전당·장학사업 다변화"

3대 중점 사업에 역량 결집… 특별위원회서 실행계획 마련

제2기 첫 상임위원 회의

25만 동문을 하나로 묶어내고 참여의 기회를 더욱 넓히는 조직 활성화, 동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총동창회관이 될 '동국인의 전당'(가칭)건립, 장

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에 들어 가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3대 중점사업 설 정과 사업별 특별위원회 설치는 그동 안 총동창회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전 반적으로 재검토, 반성하고 나아가 참 등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동국인의 전당 건립은 25만 동문들이 염원해온 총동창회관을 짓는 사업으로서 소통의 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관으로, 동국발전의 지혜와 힘이 모아지는 상생의 공간으로

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칙 제20조(위원회의 구성과 역 할) 3항에 의거해 Δ 조직강화 특별위 원회 Δ '동국인의 전당' 건립 특별위원 회 Δ 동국사랑 희망콘서트추진 특별위원 회 설치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칙 일부 개정안 심의

또한 회원 증가와 총동창회 기능의다양화에 따라 회칙 제19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를 일부 개정하는안을 의결,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와총회때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Δ1항의 상임위원회를 상임부회장 20인내외에서 30인내외로 하고 Δ2항의분과위원회에 종단・법인・학교협력,사업,재무담당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학술분과를 학술・평가분과로 변경하며 Δ4항의 '상임고문은 회장의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자문에 응할 수 있다'를 상임고문과감사까지로 참여폭을 넓히기로 한 것등이다.

상임위원 '큰 봉사'당부

이 회장은 회의에 앞서 28명의 신임 상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 사말을 통해 "제1기는 모교 위상 제고 라는 큰 목표아래 장학사업과 총동창 회 조직의 체계화·활성화를 위해 노 력해왔다"면서 "이제 2기는 제1기 사 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총동창회가 항구적 발 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동국인의 전당'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협 조와 봉사를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김동정·송석 구 상임고문과 이제곤 이홍섭 감사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였으며, 상 임위원은 송석환 수석부회장 등 21명 (6명 위임)이 참석했다.



제 26대 총동창회 첫 상임위원회가 지난 5월 7일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사업 확대가 26대 총동창회 활동의 중점사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 전 동문의 만 장일치 추대로 25대에 이어 26대 회장 에 선임된 이연택회장은 연초 총동창 회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5월7일 총동창회 회의실에 서 2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총동창회 활동방향과 사업목표를 협의 확정했다.

단위조직 협의체 활성화

이날 확정된 이회장의 제2기 총동창 회 사업목표는 '동국인의 전당'건립, 학과·대학원·지역·직장·직능별 단 위동창회조직의 네트워크강화, 장학사 업의 확대 등으로 사업별로 별도의 특

여하는 동창회, 기여하는 동창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결속을 통해 내부 힘을 강화하고 그 바탕위에 소통과 상생의 공간이될 동국인의 전당을 건립하며, 장학사업은 사회평판도나 모교 평가순위 향상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고시반장학사 건립을 구체화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직의 활성화 사업은 학과-대학원 · 지역 · 직장 · 직능별 단위조직의 체계화 등을 통해 소통 · 협력 · 참여하는 총동창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1차적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정하는 한편 각 단위조직의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갖는

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학사업은 기존의 장학금 전달방식 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다변화하여 재 학생의 피부에 와 닿으며 모교 평가 순위와 사회평판도 향상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 중 하나는 총동창회 차원에서 국가고시장 학사를 건립하여 각종 국가고시 합격 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고시장 학사는 장학사업의 기본 마인드를 그 동안의 수혜인원 중심에서 한차원 높 여서 수혜자와 모교 발전에, 동문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또 장학금의 외연 확대라는 측면 에서 기부자 지정장학금이라든가 대학 별 릴레이장학금과 함께 학과·대학원 등의 각급단위조직에서 지급하는 장학 금을 권장, 확충해나가는 방안도 구체

동문님의 작은 정성이 큰 장학금으로 이어집니다

동문님께서 보내주신 연회비와 임원회비는 후배장학사업, 총동창회보 제작, 조직강화 및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1년에 단 한번 내는 연회비 2만원으로 'My pride 동국'이 실현됩니다

• 일반회원 1년 회비 : 2만원

• 임원 분담금

■고문: 1백만원 이상 ■부회장: 1백만원

■지도위원 : 30만원

■상임이사: 20만원 ■이사: 10만원

■ 송금계좌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지로납부: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3, 736-4988)로 연락주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인의 전당'건립 서두른다

역사와 전통 · 미래의 꿈이 살아 숨쉬는 '소통의 공간' 으로



본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국인 의 전당'(가칭) 건립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를 거듭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동국인의 전당은 소통과 만남, 역사관, 명예의 전당, 콘서트홀 등의 다목적 공간 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본회는 동국인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5월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 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 한 바 있다.

동국인의 전당 건립안은 "그동안 개교 100주년이 넘는 동창회로서 반듯한 동창회 관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는 많 은 동문들의 서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모교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협력하고 싶어도 서로만날 수 있는 소통 공간조차 없다는 것은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우리 동문들의책임이다"면서 "더 이상 미룰수도, 포기할수도 없는 사업으로 인식을 같이하자"고 공감을 표시했다.

대부분 대학 학교부지에 건립

동국인의 전당 건립은 대부분의 대학들 이 학교부지에다 동창회관을 건립하고 있 어 본회도 학교부지만 확보돼면 곧바로 설 계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동국인의 전당 건립안은 역대 동창회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크게 진전시키지 못했다. 2002년 12월23일 동국인의 밤에서 류주형 총동창회장이 회관 건립기금 1억원 약정과 함께 1차분 5천만원을 장동락모금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건립추진 활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2004년 모금활동이 중단되었다. 이어 2007년에는 전순

표 총동창회장이 중구 필동 옛 중앙대병원 자리에 위치한 충무로영상센터(가칭)내의 일정공간을 동창회관으로 사용한다는 학 교법인·학교·총동창회 3자간 기본합의서 에 서명함으로써 동국인의 전당은 충무로 영상센터 개발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동국인의 전당 건립안은 시행착 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어 동문들 사이에 "건립하는 것이냐, 포기하는 것이 냐"는 문의와 성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 통과 결집의 공간이 여의치 않아 총동창회 활동까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연택 회장 제2기 총동창회가 동국인의 전당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동문들의 자 부심과 모교 위상 회복에 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이 더 단결하고 애교심을 발휘해 모 든 면에서 모교 평가가 향상되면서 자연스 레 과거 3대사학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이연택 회장은 동국인의 전당과 국 가고시장학사 건립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1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 지 혼자서 모교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는 열정을 보였다.

이어 5월15일에는 전날 골프대회로 피로 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모교 위태량 건설 사업본부장을 만나 부지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신관호 사업국장과 홍석표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신공학관 옆 공터와 원흥관뒤 생명과학연구원 자리, 충무로 영 상센터, 후문쪽 국제관 예정자리까지 후보 지가 될 만한 곳을 모두 살폈다.

이연택 회장은 지난 5월21일 오전 전영 화 기획담당, 박용재 총무담당, 문병호 홍 보담당 부회장을 불러 사무처 회의실에서 동국의 전당 건립 취지와 용도, 건물 부지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모교 실무자 등과 협의 가져

5월22일에는 이연택 회장과 이재형, 문 병호 부회장 등이 모교 조성구 경영부총장 과 위태량 건설사업본부장과 미팅을 갖고 총동창회측과 학교측의 상호 입장을 교환 했다. 또 5월23일에는 박용재 총무담당부 회장과 사무처 직원이 모교 대외협력본부 를 방문, 동국인의 전당 건립과 관련된 부 지 물색에 학교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는 후보지가운데 혜화문쪽 모자원 자리는 학교당국의 상징 건물로, 후문쪽 국제관 후보지는 총동창회가 주축이 된 기 념비적 건물로 신축했으면 하는 바램을 학 교측에 전달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본회는 △위원회 활동 방향 설정 △학교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업무를 수행을 위해 지난 5월21일자로 동국인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 TF팀(위원장=송석환 수석부회장)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연택 회장, 매달 1백만원씩 이체 '동국인의 전당'건립기금 CMS 제1호 신청



세 2 6 대 총동창회는 최대 숙원 사업인 '동 국인의 전 당'과 '국 가고시장학 사'건립을 우선 순위 에 두고 이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CMS 등 다 양한 모금방법을 개발해 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연택 회장은 지난 5월 7일 상임위원 회 석상에서 "동국인의 전당이나 국가고 시장학사 건립을 위해 회장부터 솔선수 범한다는 의미에서 착공때까지 건립기금 CMS 이체 제1호로 매월 1백만원씩 출연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병호 홍 보담당 부회장은 "동국인의 전당을 건립 하는데 이 회장님의 발원과 선봉장 역할 이 마중물이 되어 25만 동문들에게 차고 넘쳐 좋은 결심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동문들의 현실여건이 목돈을 출연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달 1만 원, 5만원, 10만원, 1백만원 등 본인 형편 에 맞는 수준에서 CMS 이체를 신청, 꾸 준히 참여해준다면 우리의 위상이나 명 예가 더 빨리 회복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이제 우리의 손으로 동국인의 자부심을 키우는데 물러남이 없이 흔쾌히 하나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25일 동국인의 전당 건립기금으로 CMS를 통해 첫회분 1백만 원을 납부했다.

한편 본회는 동국인의 전당 건립기금 외에도 장학금, 발전기금, 임원회비 등도 CMS를 통해 이체하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CMS는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 매월 지 정된 날짜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객(회 원)의 계좌에서 약정된 금액을 인출하여 총동창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좋은 대학, 좋은 동창회는 나로 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동행'

모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동문들의 참여와 협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동국인의 전당 건립기금, 장학기금을 CMS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원회비/평생회비(50만원)를 CMS를 통해 분납하실수 있습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방식은 알려주신 계좌 내용으로 총동창회 사무처에서 금융결제원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출금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관련 문의 및 개인정보 변경은 02)733-3993으로 연락주십시오.
- 장학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 후원신청서(CMS)

성 명	E-mail							
졸 업 구 분	학과(대학원) 입학 년 / 졸업							
주 소								
전 화	자 택 직장							
후 원 종 류	□장학기금 □동창회관건립기금 □평생회비 □임원회비 □기타()							
□ CMS통장 자 동 이 체	예금주 2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 무 통 장 입 금 계 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 금 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납 부 금 액	□월1만원 □월2만원 □월3만원 □월5만원 □월10만원 □월100만원 □기타(월 원)							
의 견 란								

※ 이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02-733-3992)로 총동창회 사무처에 보내주십시오.

위와 같이 총동창회 후원금 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국가고시장학사 운영에 장학사업 초점

대학평가 대응… 단위조직 · 지정장학금 제도등 새 모델 도입

모교 대학평가 순위 향상 등의 염원과 정성을 담은 총동창회 장학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이같은 방침은 장학사업이 모교 발전에 직·간접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점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이연택 회장의 2기 장학사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제1기 장학사업이 수혜인원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면, 2기는 국가고시장학사 건립과 지정장학금·단위조직 장학금 권장같은 더 큰 틀속에서 장학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연택 회장은 "이제는 장학사업을 단순히 장학금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선 국가고시 합격자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가고시장학사 건립을 서둘러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어 "국가고시장학사는 총동창회의 힘으로 지어서 총동창회 힘으로 장학금에서부터 숙식비, 특강, 교재비 등에 이르기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로 국내대학 동창사회에서 처음있는 사 업이 될 것이다"면서 "이는 국내 3대사학의 위상과 긍지를 기필코 되찾겠다는 염원과 의지가 담긴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해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동창회의 장학사업은 일방적 장학금 지급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1995년 2월 설립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매년 40여명 안팎의 재학생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해온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09년 이연택 총동창회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동문들의 장학기금 협찬과 회비 동참에 힘입어 2010년 208명, 2011년에는 516명으로 종전에 비해 장학금을 13배나 늘려 지급함으로써 우리도 힘을모으면 할 수 있다는 잠재력과 자신감을 갖

게 되고 모교 평가 순위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해주었다. 또 2010년 에 모교 교수연구 격려비로 1억원을 모교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국내대학 동창회 사상 첫 교수연구 지원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 기도 했다.

총동창회는 사회 평판도 등에 각종 국가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 지난 2010년 고시반 학습지원비로 3천7백50만원 을 전달한 것을 비롯 2011년에는 각종 국가 고시 합격자 격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금년도에는 1학기분으로 지난 3월 서울과 경주캠퍼스 재학생 2백명에게 2억원의 장학 금을 전달했으며, 또 각종 공직시험 합격자 격려금 등으로 1억원을 지원해 선배들의 끊 임없는 후배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총동창회의 최근 장학금 규모는 소위 말하는 SKY대학을 제외하고는 서울 소재 유수대학과 비교해볼 때 수혜 인원이나지급액에서 경쟁력이 상위수준으로 평가되

고있다

그러나 지금의 장학금 지급형태는 일회성이고, 재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고시장학사 건립안은설득력과 함께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서 금명간 국가고시장 학사 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시업 전반 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학재정 확충과 장학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동문 개인명의 장학금' 발굴 활동과 '학과별 장학금 릴레이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과·대학원· 직능조직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권장, 활성 화 시켜나가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각급 단위조직별 연회비 납부와 CMS 확산운동을 통해서도 동국사랑 장학금의 의의와 참여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으로 있다.

정상영 고문 또 1억원

각종 공직시험 합격자 격려금으로



본회 정상영 고문(57/61법학, KCC명예회 장)이 지난 3월8일 공직진출 동문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1억원을 본회로 보내왔다. 정 고문은 지난해 12월15일 국가고시 합격자 격려금으로 1억원을 쾌척한데 이어 1억원을 또다시 기탁해 동문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번 격려금은 모교로 이관되어 경찰간부시험, 청와대, 국정원 등의 공직진출자 등에게 1인당 3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동국장학회 예·결산안 통과 금년도 지급목표 예년 수준으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2012년도 제1차 이사회가 지난 2월29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2011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법인이사 13명 중 이연택 이사장을 비롯 7명의 이사가 참석해 성원되었다. 제1호 안건인'2011년도 결산안'은 "장학금 지급 4억2천3백만원, 지정장학금 지급 1억1천750만원, 차기 이월금 2억4천6백38만3천576원으로 결산되었다"는 이홍섭 감사의 결산 수지사항 보고와 신관호 사무국장의 회무보고를 들은 뒤원안대로 가결했다.

제2호 안건인 '2012년도 예산안'은 "장학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뒤 기본 재산 10억원을 제외한 총 11억원 규모의 예산 수지안을 통과시켰다. 또 제3호 안건인 '2012년도 장학금 지급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 2학기로 나누어 총동창회와 단위총동창회가 5백명 규모를 유지,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이사회에는 김동정, 원용선, 홍파스님, 김진문, 서영준, 구자선 이사와 김진억, 이홍섭 감사가등이 참석했다.

형종호 고문 5천만원

형종호(56/61법학, 삼공기어공업(주) 회장) 고문이 지난 3월28일 열린 제74차 정기이사회 겸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장 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 혔다. 형 고문은 지난 2010년에 장학기금 으로 1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 5천만원을 약정함으로써 후배들을 위 한 장학기금 기부금은 총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형 고문은 본회에 장학기금을 보내온 것 외에도 금년 3월에 별도의 장학재단 을 만들어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인천 등지에서 모범 기업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박종윤 고문 2천만원 약정



박종윤(56/59경제, (주)세창 회장) 고 문이 제74차 정기이 사회 겸 제30차 정 기총회에서 모교 제 2건학기금으로 연말 까지 2천만원을 기

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동창회 1학기 장학금 전달식 마쳐

회비가 후배들의 꿈을 키우다

일반 년회비와 임원회비 등의 정성이 모아져 재학생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전 달됐다.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택 회장)는 1학 기 장학금으로 서울캠퍼스 110명, 경주캠 퍼스 90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서울캠퍼스 110명지급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3월26일 모교 중강당에서 열려 각 학과와 대학원, 지역동문회 등에서 추천한 110명에게 1백만원씩 총 1억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연택(56/61법학) 총동창회장 겸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의 견인차 로서 선후배 간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 위해 장학사업을 1순위에 두고 노력하 고 있다"면서 "동문들의 정성이 후배 들의 꿈을 키우는데 힘이 되어 동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캠퍼스는 90명에게

2012년도 1학기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3월16일 경주캠퍼스 백상관컨벤션홀에서 1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동국장학회 장학금은 동국의 건학이념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날전달식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이 학과 및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되어 90명에게총 9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ROTC 4명 · 81학번 5명 전달

한편 서울캠퍼스 장학증서 수여식에 서는 ROTC 동문회 장학생 4명, 81학번 입학30주년 장학생 5명에 대한 장학증 서도 함께 전달했다.

법학과 동창회 장학금

법학과 동창회(회장=김용길, 61/65 법학)가 지난 4월 4일(수) 법학과 재학생 7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0년부터 모금한 법학과 후배사랑 장학금에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했으며, 2010년에는 6명의학생에게 총 60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행정학과 장학금 동문회등서 3천만원 모아

경찰행정학과동문회(회장=심응석)는 지난 4월27일 모교를 방문, 조윤오 경찰행정학과장에게 후배 장학금으로 1천5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행정학과는 이날 학과동문회 장학기금을 비롯 경찰사법대학원 재학생 기탁분 5백만 원과 에스원, (주)하이파킹, 교차로신 문사, (주)대성산업, 김재규경찰학원 등에서 기탁한 1천5백만원 등 모두 3 천50만원의 장학금을 모아 28명의 재학생들에게 수여했다.

제26대 총동창회 상임위원 28명 위촉

전문성과 세대간 조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일하는 총동창회'로 봉사 다짐



송석환 수석 부회장 _{과위원회} 담

제26대 총 동창회 상임 위원회가 새 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이연택 회 장은 상임위 원회 위원으 로 송석환 수석부회장 을 비롯 분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강한 총동창회, 일하는 총동창 회에 기조를 두고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 성, 세대간 조화와 동문활동의 대표성 등 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상임위원 선임과정에서 선배 기수들이 후배들의 참여 문호를 열 어주기 위해 자리를 대폭 양보하는 미덕 도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26대 상임위원회는 지난 25대때 담 당부회장(29명)과 상임부회장(26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임위

이번 상임위원회는 조직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교 대표, 동국장 학회, 70 · 80회, 법정회, 동상회, 언론계, 여자총동창회, 산악회, ROTC, 동악회, 동 국어너스클럽 등을 대표하는 동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동문사회의 특성 을 담아냈다.

한편 각 분과위원회 담당부회장 외에 무임소 상임부회장을 다수 선임했는데, 이는 다양한 지혜와 참여,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각종 T/F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랑의 일기재단 이사장 △체육담당=박상호(64/68법학) 한국정치발전연구소장 △취업담당=김환배(68/72연공) 성화실업(주) 대표이사 △문화예술담당=최진수(78/85연영) 커뮤니케이션 윌 대표이사 △여성담당=김영순(65/69화학) 동국대 명예교수, 여자총동창회장 △대외협력담당=김오현(76/80체교) (주)보경 회장 △국제담당=차민수(69/73경제) 카지노인터내셔널그룹 회장



종단 재단 학교협력 법타 기획담당 전영화





총무담당 박용재



사업담당 서영준



조직담당 김진억



재정담당 최진식



재무담당 박동열



장학담당 김진문



학술 · 평가담당 연기영



홍보담당 문병호



체육담당 박상호



취업담당 김환배



문화예술담당 최진수 여성담당 김영순





대외협력담당 김오현



국제담당 차민수



상임위원 한우삼



상임위원 이재형



상임위원 이인정



상임위원 김대식

원회로 거듭나게



상임위원 강영규



상임위원 고용규



상임위원 나경미



상임위원 서승삼



상임위원 김동성

촉장을 수여했다.



상임위원 전종무



상임위원 정산스님



되었다.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은 25대 담당 부회장 28명가운데 16명이 업무 연계 성 차원에서 유임 되고, 11명은 새로 영입되었다.

또 선후배 세대간 조화를 위해 60년대 와 70·80년대 학번 비율을 14명 대 13명 으로 안배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직, 재 정, 재무, 학술ㆍ평가, 문화예술, 대외협 력담당 상임부회장을 70년대 학번으로 전진 배치했다.

담당분과 늘려 업무 세분화

조직 활성화를 위해 조직담당 부회장 에 70년대 학번이자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진억 감사를 영입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김진억 감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직 사임서를 본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수석부회장=송석환(64/68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종단・법인・학교협력=법타스님 (68/74인철)동국대 정각원장

△기획담당=전영화(65/69경행) 동국대 겸임교수

△총무담당=박용재(66/70법학) 우송대 겸임교수 △사업담당=서영준(64/68법학)

(주)동양 회장 △조직담당=김진억(73/80경영)

경기대 교수 △재정담당=최진식(77/83무역)

심팩(주) 회장 △재무담당=박동열(73/78행정)

세무법인 호람 회장

△장학담당=김진문(64/71경영) 신성약품(주) 회장

△학술·평가담당=연기영(71/75법학)

동국대 법과대 교수 △홍보담당=문병호(68/72정외)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상임부회장=이재형(64/68불교) 대한피앤씨 대표이사 △상임부회장=이인정(65/72상학) (주)태인 대표이사 △상임부회장=김대식(66/70통계) (주)하이큐스 대표이사 △상임부회장=강영규(70/77경행) (주)씨큐어넷 대표이사 △상임부회장=고용규(70/74정외) (주)동우들 대표이사 △상임부회장=나경미(70/74정외) 제일테크노스 부사장 △상임부회장=서승삼(71/78경제) (주)녹십자MS 대표이사 △상임부회장=김동성(73/81정외)

(주)베리스코리아 대표이사 △상임부회장=전종무(81/85미술) 갤러리田 대표

△상임부회장=정산스님(88/92선학) 경국사 주지

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논의하며 의결하는 아주 중요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서 "오늘 위 촉된 상임위원들은 회장과 함께 제26대 총동창회를 이끄는 공동운명체로서 새

각오, 새 출발을 함에 있어 봉사자적 자

세로 총동창회 발전의 실질적 견인차가

이 회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당 상임부회장 16명, 무임소 상임부회장

11명에 대한 선임을 마치고 지난 5월7일 위

70·80학번 대거 참여

사업계획 · 예산안 통과

이사회 겸 정기총회 열려



본회 제74차 정기이사회 겸 제31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28일 열렸다

본회 제74차 정기이사회 겸 제31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28일 오후 6시30 분부터 열려 2011년도 회무 및 결산 심의(안)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심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 시켰다. 이날 회의는 박종윤, 김재기, 임덕규, 원용선, 김희형, 최규철, 윤일 균 고문을 비롯해 지도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 었다.

이날 이연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 난해 모교의 언론사 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하고, 총동창회 연회비 동참률이 2 배로 늘어나는 등 동국발전에 대한 자 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 활 력과 미래가 보이는 총동창회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옥 모교 총장 은 축사에서 "첨단 기숙사와 신공학관 준공 등으로 교육・연구 인프라가 크 게 확충되었으며, 특히 오늘 발표된 교 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선 정으로 2백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 었다"고 보고해 참석 동문들의 큰 박 수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전영화 사무총장의 사 회로 제1부 정기이사회, 제2부 정기총 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보고 에서 이홍섭(80/84회계,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 부대표)감사는 "연회비는 크 게 증가했으나 임원 분담금이 저조하 므로 이의 제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하며, 또한 학교에 적립되어 있는 총동창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 한 뒤 "2011년도 결산수지 사항은 중 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2011년도 회무 및 결산 안 심의 의안은 "감사보고에서 이의가 없었던 만큼 회의 자료집을 참고하고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한다"는 민병철(62/66상학, KAMCO 이사)지도 위원의 제안에 대해 재청과 삼청으로 화답, 의결되었다. 이어진 2012년도 사 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안도 사무총

장의 보고를 들은 뒤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의결되었다.

사업계획은 △조직 정비 및 확대 △ 재정기반 확충 △장학사업 내실화 △ 영재학숙(총동창회관) 건립 추진 △전 동국인 참여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세 워졌다.

제2부 정기총회는 "회원 202명 참석 으로 회칙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총 회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정기총회 의 장의 성원 선포에 이어 안건으로 제1 호 의안 201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제2호 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보고 등이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홍(65/69국문, 한국보건연구원 전 문위원) 동문이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 "제1호 및 제2호 안건 보고의 경우, 앞 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된 동일 안건이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일인으 로서 중복되는 만큼 일괄 통과해줄 것 을 동의한다"고 제안해 재청, 삼청으로 보고를 마쳤다.

한편 식전 행사로 모교 분당한방병 원장 김장현 교수를 초빙해 '새로운 세대, Young Old 세대의 건강'을 주제 로 건강특강을 가졌다.

사무국장에 홍석표동문



본회 신임 사무국 장으로 홍석표 (75/82경영)동문이 임명되었다.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신관호동문은 사 · 농식표동문 업국장으로 임명돼

사무처 업무가 두 국장 체제로 운영 된다. 이번 사무처 인사는 전영화 사 무총장 퇴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 어졌다.

홍국장은 우리은행에 30여년간 재 직하면서 일선 지점장과 강남영업본 부장 등을 지냈다. 홍국장은 재학시 경상대 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우리은 행 퇴직과 함께 여러 혜택이 주어지 는 자회사 근무를 포기하고 본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원해왔다.

이연택 회장 모교법인 이사로

재단과 총동창회간 신뢰관계 구축

이연택 회장이 지난 2월28일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26회 이사회에 서 개방형 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2년 3월21일부터 2016년 3월20일까 지 4년이다.

이번 이 회장의 모교 이사 선임은 무엇보다 종단과 재단, 학교, 총동창회 가 학교발전을 위해 긴밀한 대화와 협 력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본회 입장에서 보면 모교법인 이사 참여는 학교발전의 한축이라는 차원에 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동문 대 표의 이사 선임은 모교 정관에는 따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고 최재구 회장 을 비롯 정재철, 황명수, 권노갑 회장 등 역대 총동창회장들이 관행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동문 감사의 의혹제기 사항을 두고 당시 류 주형 총동창회장등이 모교 총장을 고 발하면서 재단과 총동창회 관계가 급 랭해지고 급기야 총동창회장의 모교법 인 이사 선임이 배제되었다. 제24대 전 순표 회장의 법인 이사 참여는 총동창회 장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경력에 따 른 개인 차원의 선임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비추어 볼때 이번 이 회장의 이사 선임은 7년여의 공백 끝에 재단 과 총동창회간의 신뢰관계가 복원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학교 발전을 위한 재단 운영에도 총동 창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안채란ㆍ형종호 동문 고문 추대



형종호 고문

본회 고문으로 안채란(48/54국문)동 문과 형종호(56/61법학)동문이 새로 위촉됐다. 이번 고문 위촉은 회칙 제12 조 3항에 의거, 지난 5월7일 열린 상임 위원회 추대를 거쳐 이루어졌다.

안채란 신임 고문

안 고문은 30여년간 본회 부회장으 로 활동했으며, 의정부에 영석중고등 학교를 설립하여 교장과 이사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0년 시가 1천억대 의 학교를 모교에 무상 기부한 바 있

다. 안 고문은 본회 여학사회장을 역임하면서 후배 장학금을 조성해 전달했으며, 졸업생 80여명을 중등 교사로 채용하는 등 동국사랑에 앞 장서왔다. 2010년 동국인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받았다.

형종호 신임 고문

형 고문은 그동안 본회 부회장으 로 활약하며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 해왔다. 형 고문은 인천 남동공단에 서 상용차 트랜스미션과 액슬 부품, 산 업용 기어류 등을 생산하는 삼공기어 공업(주) 회장으로 있다. 삼공기어공업 은 지난해 수출 1천만불을 달성했다. 형 고문은 지난 2010년 본회 장학기금 으로 1억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는 장학금 5천만원을 추가 약정했다. 형 고문은 금년 봄 30 억원을 출연, '형남진 장학재단'을 출 범시켜 54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홈커밍데이 행사 이어지다

입학 50 · 40 · 30주년 기념으로

모교 개교 106주년을 맞아 입학 50 주년 • 40주년 • 30주년 기념 홈커밍데 이 행사가 지난 5월29일부터 차례로 이 어졌다.

홈커밍데이는 지난 2010년 입학30주 년기념으로 80학번이 첫 행사를 가졌 으며 금년에는 82학번의 입학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입 학 50주년을 맞은 62학번과 40주년을 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맞은 72학번들이 모교 방문행사를 가 졌다.

각 학번별 방문 일정은 50학번 5월 29일, 40학번 5월31일, 30학번 6월2일 이었으며, 방문 행사내용으로는 가족 동반으로 캠퍼스 투어, 모교 현황 설 명, 학번별 총회 및 만찬 등을 가졌다.

한편 82학번 동문들은 4천만원을 모

동국인 체육대회 경주에서 열린다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주관

제23회 동국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10일(일) 경주캠퍼스에서 개최 된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지역 총동창회를 비롯 직할 경주총동창회, 부산 · 대구 · 경남지부총동창회,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총동창회,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총학생회 등 9개팀이 참 가한다.

이번 대회는 사회과학대학원총동창 회(회장=김석만)가 주관하게 된다.

제19대 국회에 15명 진출

18대보다 4명 늘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

"희망의 정치로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겠 습니다"



김 태 원 (71/75연극영화)



홍 영 표 (78/96철학과)



유 재 중 (81/85행정학과)



이 상 직 (82/89경영학과)



최 재 성 (84/93불교학과)



박 원 석 (88/92사회학과)



한 기 호 (90/93행정대학원)



이 채 익 (90/92사회개발대학원)



노 웅 래 (99/05언론정보대학원)



김 근 태 (01/09경영대학원)



송 영 근 (03/06불교대학원)



윤 재 옥 (06대학원)



정 갑 윤 (10/11사회개발대학원)

2메 이조호



주 호 영 (10/불교대학원)



정 호 준 (11/언론정보대학원)

지난 4월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동문 15명(학부+대학원 졸업생)이 당선의 영예를 안 았다. 당선자 수는 지난 18대의 11명보다 4명이 늘어 났다.

이번에 당선된 동문 국회의원들을 보면 학부출신 이 6명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같았고, 대학원 출신은 18대보다 4명이 늘어난 9명이었다.

이중 지역구 당선 동문은 13명으로 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2명, 인천 1명, 울산 2명, 경기 2명, 강원 1 명, 충남 1명, 전북 1명, 비례대표 등 전국적으로 고 른 분포를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9명・민주 통합당 5명·통합진보당 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당선으로 2선이상 국회의원으로는 정갑윤(4 선)동문을 비롯하여 주호영(3선), 최재성(3선), 김태 원(2선), 노웅래(2선), 유재중(2선), 한기호(2선), 홍 영표(2선)동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학부기준 대학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서는 서울 대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25명), 연세대 (24명), 성균관대(22명), 이화여대(11명), 중앙대(9 명), 건국대(7명), 전남대(7명), 동국대(6명), 경희대 (6명), 한양대(6명), 한국외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 동문은 다음과 같다.

학부 출신 (6명)

- ▶ 김태원(고양 덕양을, 새누리)
- 홍영표(인천 부평을, 민주통합)
- ▶ 유재중(부산 수영구, 새누리)
- 이상직(전주 완산을, 민주통합)
- ▶ 최재성(남양주시갑, 민주통합)
- ▶ 박원석(통합진보 비례대표6번)

대학원 출신 (9명)

- ▶ 한기호(철원 화천 양구 인제, 새누리)
- ▶ 이채익(울산 남구갑, 새누리)
- ▶ 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통합)
- ▶ 김근태(충남 부여 청양, 새누리)
- ▶ 송영근(새누리 비례대표18번)
- ▶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새누리)
- ▶ 정갑윤(울산 중구, 새누리)
- ▶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새누리) ▶ 정호준(서울 중구, 민주통합)

모두 31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를 제외한 지역구 출마 도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는 다음과 같다.

- ▶구상찬(77/81체교) 서울 강서갑, 새누리
- ▶이재식(95/97행원) 서울 은평구갑, 무소속
- ▶이철기(77/81정치) 인천 연수구, 민주통합당
- ▶김교흥(96/98대학원) 인천서 · 강화군갑, 민주통합
- ▶이정현(78/85정외) 광주 서구을, 새누리
- ▶김찬경(64/02농학) 고양 일산서구, 무소속
- ▶양홍관(81/07철학) 남양주시갑, 무소속 ▶우태주(66/70경영) 용인시병, 무소속
- ▶손문영(69/73토목) 속초 고성 양양, 무소속
- ▶김원창(64/71경제) 태백영월평창정선, 민주통합
- ▶류상곤(70/74정외) 서산 태안, 새누리
- ▶박정현(82/86정외) 부여 청양, 민주통합
- ▶유인학(84/84대학원) 장흥 강진 영암, 무소속
- ▶김석기(85/89대학원) 경주시, 무소속
- ▶남선모(76/80행정) 영양영덕봉화울진, 국민생각
- ▶박희부(57/65법학) 세종자치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제19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이 본회 이연택 회장 초청으로 당선자와 김희옥 모교 종장, 본회 고 문 및 회장단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30일 오 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도림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당선자 15명 가운데 김근태, 김태 원, 노웅래, 박원석, 유재중, 정호준, 주호영, 최재성 의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25만 동 국가족의 뜻을 모은 축하패가 주어졌다.

이날 이연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동문이 18대보다 4명 늘어났다. 의원 개개인의 영광과 함께 동국인의 자부심과 위상을 빛내 주었 한편 본회에서 파악한 이번 19대 선거 출마자는 다. 훌륭한 국정 활동과 더불어 동국발전을 위해서

3선인 최재성 의원은 당선자 대표인사에서 "동국 은 언제나 포근한 고향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 히 뛰겠다"고 화답했으며 주호영 의원 등 참석한 당 선자 모두가 개별인사를 통해 "동국발전에 힘 닿는 데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노갑 고문은 건배제의를 통해 "동국은 정 치인의 산실로서 전통과 파워가 있다. 이번 당선 동 문들도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에게는 김희옥 모교 총장과 박종윤 고문이 가져온 선물이 1점씩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만찬비용은 김오현(75/79 체교, 보경그 룹 회장)동문이 협찬했다.

역대 동문 국회의원 명단(본회 파악분)

2대	이종욱
4대	강영훈
5대	강영훈 윤정구 이규영
6대	김은하
7대	김은하
8대	김은하 오중열 유성범 최재구 최형우
9대	김동영 김은하 김진복 안종열 이범준 최재구
	최형우 황명수
10대	김동영 김상석 김용호 김유복 김은하 김제만
	류한열 이상민 이정식 최재구 최형우 한옥신
11대	고병현 김영구 김유복 김은하 맹은재 박익주
	신순범 양창식 이범준 이영일 이영준 이원범
	임덕규 정재철 조병봉 황명수
12대	김동영 김영구 김용오 류한열 명화섭 박규식
	박왕식 박익주 신민선 신순범 양창식 이범준
	이상민 이영일 이영준 장충준 정재철 조병봉
	최재구
13대	구자춘 권노갑 김길곤 김동영 김영구 김홍만
	류인학 류한열 박지원 박태권 신순범 유기천
	이긍규 이기빈 이찬구 정기영 최형우 황명수
14대	강희찬 구자춘 권노갑 김영구 남평우 류인학
	박규식 박근호 박제상 박희부 신순범 양창식
	이긍규 이영창 정재철 최상용 최형우 황명수
15대	권노갑 김기재 김영구 김일윤 남평우 박상규
	신영균 윤철상 이긍규 이원범 정재철 최형우
	황규선
16대	강신성일 김기재 김영구 김일윤 박상규 설송웅
2	유재규 윤철상 임인배 조재환 황승민
17대	김교흥 노웅래 임인배 조승수 정종복 최재성
18대	구상찬 김옥이 김태원 서종표 유재중 이정현
10.0	이진삼 조승수 최재성 한기호 홍영표
19대	김근태 김태원 노웅래 박원석 송영근 유재중
	윤재옥 이상직 이채익 정갑윤 정호준 주호영
	최재성 한기호 홍영표

'동국인 친선골프대회' 빗속에 더욱 빛났다

56개팀 참가…일사불란하게 경기치러 저력 과시



모교 개교 106주년기념 '제6회 동국 인 친선골프대회'가 동문 및 교직원 등 56개팀 2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 난 5월14일(월) 금강컨트리클럽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대회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경기 진행이 우려되었으나 참가자들이 18홀까지 일사불란하게 라 운딩하는 동국인들의 저력과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더욱 의미있는 대 회가 되었다.

학과 · 대학원 · 동호회 노-장-청 골고루 참가

본회와 모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모교와 총동창회가 하나되어 조직 결속 및 참여분위기 확산, 장학기금 모금운동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학과, 대학원, 교직원, 골프동호회, 경주・울산동문회, 중국동문회 등에서 노・장・청 동문들이 골고루 참석하여화합과 상생의 축제가 되었다.

본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7백만원의 수익금을 남겨 장학기금으로 적립했다.

이번 대회의 조직구성은 본회 고문 단 전원이 고문을 맡고 이연택 총동창 회장과 김희옥 총장이 공동대회장을, 송석환 본회 수석부회장과 조성구 모 교 경영부총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박상호 본회 체육담당부회장이 경기위 원장을, 본회 상임부회장단 및 감사와 서울・경주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집행 위원과 자문위원, 경기위원을 각각 맡 아 대회를 이끌었다.

경기는 동, 서, 남코스 각 홀마다 2-3개조씩 배치되어 팀별로 참가자 상호 간 인사를 나눈뒤 낮 12시30분 싸이렌 소리와 함께 티업, 5시간여에 걸쳐 진 행되었으며 성적은 신페리어 방식으로 산출해 입상자를 가렸다.

친교와 상생 축제로 정착 행사 수익금 장학금으로

이날 경기를 마치고 진행된 시상식 겸 만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변 함없는 참여와 협력으로 이 대회에서 다시한번 'MY PRIDE 동국'의 기상을 드높혔다. 이 여세로 동국발전에 하나가 되자"고 인사했다.

김희옥 총장은 조성구 부총장이 대독 한 축사에서 "25만 동문들의 제2건학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도록 눈부신 변신 장) 고문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주쌀 10kg들이 230포를 협찬하는 등 많은 동 문들이 현금과 행운경품을 보내와 더욱 뜻깊고 알찬 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골프대회를 마친 동문들이 시상 및 만찬행사에서 격려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을 거듭해 모두가 감탄할 수 있는 변화 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시상은 우승과 준우승, 메달리스트, 니어리스트, 롱게스트로 구분되었으며, 우승과 준우승에 한해 시니어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2명씩 상패와 부상이 주어졌다. 시니어 기준은 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정했다.

정상영 고문 쌀 230포 TV 등 경품 다수 답지

이날 각 부분별 입상자 시상과 행운 권 추첨은 김진억 본회 조직담당 상임 부회장의 사회로 김동정 박종윤 최규 철 고문, 이연택 회장, 송석환 수석부 회장, 박정극 학사부총장, 김시배 전 경주캠퍼스 부총장, 노병현 동문 등이 참여했다.

또 만찬시간에 있은 건배제의에서 송석구(사회통합위원장) 고문은 "천년 만년 동국"을, 모교 정각원장 법타스님 은 모교 기금조성을 위한 ARS 홍보와 함께 "동국중흥 사바하(다 이루어지 다)"를 합창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정상영(KCC명예회

◆제6회 대회 입상자 명단

△시니어부 우승=이범욱(64/68법학) 일반부 우승=장관용(82/86체교)

△시니어부 준우승=권기종(60/64불교) 일반부 준우승=이형우(87/89경원) △메달리스트=김동길(93/95경원, 71타) △니어리스트=배정진(89/93국문, 2.5m) △롱게스트=오인종(92/94경원, 224m)

우승에 일반부 장관용 시니어부 이범욱 동문

◆행운권 당첨자 명단

 Δ 박규승(평생교육원)= 이연택 총동 창회장상 (TV)

△박득곤(73/80경행)=김희옥 총장 상(아이패드)

△이형우(87/89경원)=김영종 경주캠 퍼스총장상 (TV)

△유국현(79/83화학)=민병덕 국민은 행장상 (냉장고)

△김승정(평생교육원)=노병현 진주 랑회장상(휘트니스 1년회원권)

◆행운권 경품 협찬

△정상영(57/61법학, KCC 명예회장)

= 여주쌀 230포(1천만원상당)

△이연택(총동창회장)=

LED TV 42인치 1대

△김희옥(모교 총장)= I-PAD 1대 △김영종(경주캠퍼스 총장)=

LED TV 1대

△민병덕(국민은행장)=

양문형 냉장고 1대

 Δ 홍파스님(64/68불교, 대한불교관음 종 총무원장)= 떡 3백개

△노병현(64/68사학,(주)진주랑 회장)= 스포츠클럽 회원권 1점, 팔토시 20개

△송래섭(70/74식공, 바산고려홍삼 회장)= 홍삼절편 3백 팩

△김은호(75/79경행, 서울신문 전무 이사)= 골프용품(에찌) 1점

◆현금 협찬 동문

△송석환(64/68농경, 총동창회 수석부회장)=5백만원

△한우삼(63/69농학, 태양금속

회장)= 3백만원 △서영준(64/68법학, (주)동양

회장)= 3백만원

△박동열(73/78행정, 세무법인 호람 회장)= 3백만원

△김진문(64/71경영, 신성약품 회장)

= 2백만원

△구자선(79/81경원, 지연과시람 회장)

= 2백만원

△경영학과총동창회(회장:김철순)

= 2백만원

△박상호(64/68법학,

한국정치발전연구소장)= 1백만원

△동악회(회장:오광수)= 1백만원

△상영회(회장:김철순)= 1백만원

△동영회(회장:권중근)= 1백만원

△박종윤(55/59경제. (주)세창 회장) = 80만원

△문병호(68/72정외)= 20만원

△박은철(72/79무역)= 20만원

△진경직(81/85교육)= 20만원

△김진국(99/01행원)= 20만원

△박희원(99/01행원)= 20만원

4.19혁명 재조명 학술세미나

4.19혁명 제52주년을 맞아 '4.19혁명 재조명 학술 세미나'가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 학술세미나 준비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20일 오후 2시부터 4.19혁명기념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사에서 박영식(57/61정치) 상임고문은 "4.19는 부정부패와 독재정권 붕괴를 가져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시위대열의 맨 선두에 섰던 동국인의 열정은 실로 뜨거웠으며, 근대 한국사에 길이남을 주인공으로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회고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진모(57/61법학)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제1주제로 '4.19혁명의 재조명'을, 장덕환 현대아카데미하우스 원장이 '신동북아 질서와 남북한관계 전망'을, 조인형 강원대 명예교수가 '4.19 혁명정신과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주제로 각각발표에 나섰다.

4.19혁명 주역들, 모교 동우탑 참배



4.19혁명동지회와 4.19혁명유공자회는 지난 4월 19 일 모교 동우탑에서 8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4.19기념 52주년 추모식을 가졌다. 윤성열(59/63상 학) 4.19혁명동지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4.19정신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정신이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우리 동국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식은 모교 정각원장 법타스님(67/74인철)의 추도문 낭독에 이어 동우탑에 헌화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영식(57/61정치) 4.19혁명유공 자회 회장, 김칠봉(58/63법학) 4.19혁명유공자회 수 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윤성열 4.19혁명동지회 회 장, 박봉선(60/66경제) 4.19혁명동지회 사무총장, 박 대혁(59/63생물) 동문등 회원과 모교 조성구 경영부 총장, 교직원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지부 회장 이 · 취임식

인천광역시지부 정기총회 겸 신·구회장 이·취임 식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8일 오후 6시30분 항동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지부 회기를 최종협(54/58경제, 민주평 통 인천광역시협의회장) 전임 회장이 이연택 총동창



회장에게, 이 총동창회장이 이환섭(71/75경행, 에스 원 경인사업부 고문) 신임회장에게 전달하고, 전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위촉장 및 감사패 수여와 이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환섭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출발은 다소 미흡하지만 3천여 회원이 소통하며 사이버 공간인 홈페이지 구축, 장학사업, 경조사 활성화 등을 우선 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 정기총회

정치외교학과동문회(회장=박태권, 71/75정외) 정 기총회가 지난 2월9일 모교 상록원에서 김희형 (56/60정치), 박영식(57/61정치), 이규호(59/63정치), 이호만(59/64정치) 등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됐다.

박태권 회장은 "올해를 정외과 동문회 활성화의 원년으로 하여 그동안 침체돼 있던 동문회를 일신해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경제학과 임시총회

경제학과총동창회(회장=한영휘, 57/61, 한영무역 회장) 임시총회가 조창원(53/57) 동문을 비롯 50여명 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26일 오후 7시 서 울 명동 로얄호텔 뷔페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영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사회는 만남과 소통, 상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후배간 의 정보가 될 경제학과 동문 명부를 연말까지 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모교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있는 송일 호(79/83)동문의 모교 현황 소개와 신관호(69/73)사 무국장의 경제과총동창회 현황보고가 있은 다음 최 윤식(57/61), 조창원(55/57), 김세영(57/61) 동문 등 이 차례로 건배를 제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서 정담을 나누었다.

사회학과 김유명 회장 선출

사회학과동문회는 지난 3월 27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동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총동창회장에 김유명(81/88 변호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문용필(82/90 동국대 일산병원)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유명 회장은 '살아 있는 사회학과, 일어서는 사회학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 교수의 정년퇴임기념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은 교수는 사회학과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했다. 현재 사회학과는 학과 교수 및교직원을 중심으로 사회학과 발전기금 1억 모금 릴레이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6회 식공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식품공학과총동창회(회장/김종승, 74/7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는 지난 5월 5일 모교 만해 광장에서 노완섭(61/65, 모교명예교수), 조희재 (63/67, 3대 회장), 박태윤(63/70, 3기 총무)등 선배 동문들과 교수, 동문, 대학원생,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식공인의 날 기념식 및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권하(76/83식공) 섭외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식공인상'에 고원방(66/70, 미국소맥협회 한국대표) 동문을 시상했으며, 이어 족 구, 피구, 줄다리기 등의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으로 식공인의 기상을 과시했다. 한편 식공과는 오늘 10월 '동국인 남산걷기대회'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중등학교관리자 정기총회

서울 중등학교관리자동문회(회장=조영구, 69/73사



교, 경신고 교장)는 지난 4월23일 오후 6시 서울 명륜동 소재 '정이 가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기 회장에 김용복(72/76국문, 배재고 교장)동문을 선출하는 등 차기 임 원진 구성을 마쳤다.

이날 총회에는 이 련(64/68국문, 김용복신임회장 전 상명여중 교장)동문을 비롯 서 울시내 중고 교장, 교감, 장학사로

있는 동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교 고진호 사범대

학장과 윤재웅 전략홍보실장, 본회 신관호 사무국장 도 자리를 함께하며 동국사랑의 열망을 다졌다.

- ▲고문=박일상(1기회장, 전 동대부중 교장) 조영구(2기 회장)
- ▲회장=김용복
- ▲수석부회장=민 해(74/78국교, 혜원여고 교장)
- ▲감사=김영길(77/84국교, 인헌고 교감) 김성중(77/84생물, 중앙중 교장)
- ▲사무국장=서명석(78/85역교, 배재중 교감)
- ▲사무차장=정충래(78/85국교, 동대부고 교감) 황재인(78/85윤리, 원묵고 교감)

지부 · 지회 사무국장 회의

금년도 제2차 지부·지회 사무국장 회의가 지난 4월24일 오후 7시 고용규 조직담당 부회장을 비롯 각학과, 지역, 친목별 총동창회 사무국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14일 개최되는 제6회 동국인 골프대회와 6월10일로 예정된동국인체육대회 안내와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동국7080회 남산걷기대회



동국7080회(회장=최진식·77/83무역, 심팩 회장) 남산걷기대회가 지난 4월14일 오후 4시부터 모교를 출발,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20여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가해 상호 친목과 동국발전의 의지를 다진뒤 인근 장충동 식 당에서 뒷풀이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 강남지부 역사문화 탐방

서울 강남지부(회장=문준수, 69/74인철)는 지난 5월19일과 20일(1박2일) 경남 진주 촉석루와 남해 보리암, 상주등지에서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문준수 회장, 이광근 명예회장, 안 인수 고문과 동사협(동국대학교 지부(회) 사무총 (국)장 협의회) 회원 15명 등 모두 30여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경기 성남동문회 월례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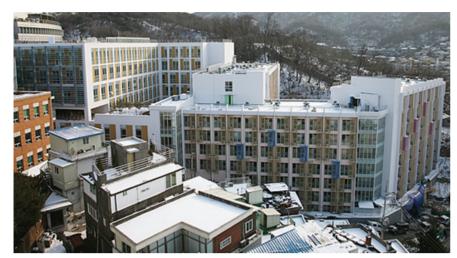
경기 성남동문회(회장=고용규, 70/74정외, (주)동 우들 대표이사)는 지난 3월11일 불곡산 입구에서 30 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시산제를 지냈다. 이어 월례모임을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강의실에서 갖고, 최우승(73/77전자, 가천대 교수)동문의 히말리아 산 행등정 보고를 들은뒤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임 집행부로 사무총장에 이철종(77/81토목, 서영엔지니 어링 상무)동문, 홍보국장에 이성훈(87/97정보관리) 동문, 조직국장에 김동일(85/92경영)동문, 재정국장 에 서정원(08/11정보보호)동문, 기획국장에 이창범 (82/87법학)동문, 대외국장에 김진수(79/83행정)동문 을 각각 임명했다.

수요산악회 시산제

수요산악회(회장=이재형・64/68불교)는 지난 4월 18일 아차산에서 정례 등반모임 겸 시산제를 갖고 무사산행을 기원했다. 회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린 시산제에서 이 회장은 "임진년 흑룡의 신묘한 기 운을 받아 금년 한 해도 회원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무사산행이 이어지며, 회원 각자의 사업이 욱일승천 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남산학사 · 신공학관 준공

서울캠퍼스 기숙사 751명 입주



남산학사와 신공학관이 준공되어 캠퍼스 공간이 한층 넓어졌다

서울 남산 자락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동국대 기숙사 '남산학사'와 신공학관 준공식이 지난 2월 28일(화) 남산학사 1 층 로비에서 있었다.

연면적 약 14,262㎡에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 동국대 기숙사 '남산학사'는, 청 정한 자연환경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최첨단 시설로 최적의 면학분위기를 갖 추었다. 2인 1실로 총 751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과 식당, 정보화 라운 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연면적 약 23,075㎡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설립된 신공학관을 통 해 이공계학과의 교육 및 연구공간이 획 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모교는 기존의 공학관(원흥관)과 신공 학관을 각각 IT, 전자 전기 및 반도체관 련 학과와 건축, 기계로봇, 토목, 화학공 학 등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혜화문부지 공원 해제로 건폐율 늘어

모교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동장과 수영장부지의 복합교육문화시설 건립계획에 이어혜화동(중문) 일대에 8천여평 규모의교육시설 건립에 착수한다. 이 계획은지난 4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모교가 제안한 도시계획 시설(학교, 공원) 변경계획 및 세부시설조정계획(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40여 년간 실질적인 학

교 부지면서도 공원시설 및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혜화문 일대가 학교용지로 편입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발계획을 통해 모교는 훈련원로까지 캠퍼스를 확장해 차량 및 보행출입이 가능하도 록 새로운 캠퍼스 관문을 설치할 계획 이다. 또한 11개층(지상 7층, 지하 4층) 규모의 상징건물 건립을 통해 대외 인지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선정

교과부 최대 200억원 지원

모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에 총 51 개 대학이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모교를 비롯해 성균관대 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도심형 첨단융합산업육성'을 목표로 동국대학교의 강점인문학과 연극,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융합하는 CT(Cultur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형 산학협력 사업이다.

불교학술원 아카이브 구축

100억원 국고 보조받아

불교학술원(원장=채인환 스님)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동안 한 국의 모든 불교기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를 구축한다. 모교는 지난해 5월, ABC사업 추진을 위해 문 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1단계 5년간 총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으 며 1차년도인 올해 정부예산 10억원이 확정됐다.

교육역량 강화사업 연속 선정

42억2천여만원 지원받아

모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 한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 업'에 선정돼 서울캠퍼스가 23억 1천 민원을, 경주캠퍼스가 19억 1천3천만원 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특히 본교와 경주캠퍼스 2011년 기준 종합 수주액 이 42억2천3백만원으로, 전국 대학 중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2008년부터 시 행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모교는 2009년 13억원, 2010년 13억7천만원, 2011년 54억1천만원 등 올해까지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각종 고시 1차 합격자 57명

공인회계사는 77명 합격

모교는 2012년도 국가고시 1차 시험에서 사법고시26명, 행정고시 25명, 외무고시 2명, 입법고시 4명, 공인회계사 77명이 합격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오는 6월 26일 치르게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은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모교 야구부, KBO총재기 2연패

모교 야구부(감독=윤재호)가 지난 5월5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회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야구부는 이날 건국대와의 결 승전에서 2대 0으로 승리, 지난해에 이 어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기를 거머쥐 었다.

이민휘 고문 '제 47회 5.16민족상' 수상 사회교육부문…미국내 한국인 위상 높여



이민휘(52/56정치, 미주한인회총연합 회 명예총회장)고문이 지난 5월16일 역 삼동 르네쌍스호텔에서 있는 있은 '제47

회 5 · 16민족상 시상식에서 사회교육부 문을 수상했다.

이 고문은 40년동안 미주동포들을 위 해 봉사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교민 화 합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왔으 며, 특히 미주동포 후원재단을 설립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고 한국인의 위 상을 높이는데 공헌을 해왔다.

5 · 16민족상은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족의 얼을 세우고 민족 의 단합과 전진을 추국하려는 의지를 담아 학술, 예술, 교육, 사회, 산업, 안정 보장 부문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정 진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내 시상해오 고 있다.

취임・영전

인신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한우삼(63/69농학.태 양금속공업(주) 회장) 동문이 지난 3월 22일 안산상공회의소 제51 차 총회에서 만장일치 로 제10대 회장에 재 추대되었다. 한 동문

은 1971년 태양금속공업(주)에 입사 후 2003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으며 3년여 동안 안산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주력해 왔다.

하비비디자인 회장 취임

강진원(65/72경영) 동문이 최근 하비비 디자인 회장에 취임했다. 하비비디자인 은 인테리어, 건축내장,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토털 인테 리어 전문 업체다.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박학도(69/73무역, 영 암고속(주) 대표) 동 문이 지난 3월 27일 태백상공회의소 임시 의원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연임됐다. 임 기는 3년이다. 박학도

동문은 현재 민주평통 태백시협의회장, 태백시 향토장학회 이사장, 영암고속(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 2차장 부임



차문희(72/79정외)동 문이 지난 4월7일 국 가정보원 제2차장(국 내정보 담당)으로 발 령됐다. 차 동문은 국 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정보교육원 국내정보

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승진



권의종(73/77무역)동 문이 신용보증기금 전 무이사로 승진했다. 권 동문은 지난 1980 년 신용보증기금에 입 사했으며, 사내 최초 박사학위 취득자로 강

남영본부장,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화섬 신임 대표이사 부임

김기유(74/80행정) 동문이 지난 3월 27 일 대한화섬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김동문은 동아그룹 감사실장, 동아건설 기획조정실장, 고려종합건축 대표이사,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로



김송학(74/81영문) 동문이 지난 3월 3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에서 에이스테크놀로 지 대표이사에 선임 됐다.

오로라월드 사장에



최영일(75/79무역) 동문이 지난 3월 오로 라월드 컨텐츠 부문 대표이시에 취임했다. 최 동문은 월트디즈 니코리아 사장, 워너 브러더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방귀희(76/81불교, 한 국장애인문인협회 회 장)동문이 지난 3월 14 일 대통령 문화특별보 좌관에 임명됐다. 방동 문은 한국장애인문인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신임 감사 선임



원중희(76/84농경) 동문이 지난 3월 14일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에서 신임 감사로 선 임됐다. 원동문은 금 융위원회에서 행정인 사과장,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롯데관광개발 총괄사장에 취임



황명선(77/83정외) 동문이 롯데관광개발 총괄 사장으로 취임 했다. 황 동문은 대한 항공 서울 및 부산 여 객지점장, 한국지역본 부장을 지냈다.

김진선 · 이정현 동문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 진 선 (71/74행정) 동문과 이정 현(78/85정 외)동문이 6 월 3일 발표 된 여당인 새 누리당의 지 명직 최고위 원으로 나란 히 올랐다.



김진선 동문

김 동문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대한 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는 동시에 총선 때 강원도민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역 안배를 감안한 것"이며, 이 동문은 "지난 4·11 총선때 광주에서 높



이정현 동문

원장을 맡고 있다.

은 득표율을 보여 당세를 확장하고 지 역주의 한계 를 극복하는 기여한 점 이 고려됐다" 고 새누리당 이 밝혔다.김 동문은 3선의 강원도지사를

지내는 동안 평창올림픽 유치에 기여했 으며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이 동문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화방송 보도국장 영전



황헌(78/85영문·문 화방송 논설위원실 장) 동문이 문화방송 보도국장에 임명됐다. 황 동문은 지난해 6 월부터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전보



김상일(79/83정외)동 문이 청와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지난 4월7일 전보되었다. 김 동문은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등을 거

경인통계청 인천소장 부임

심원보(79/86통계)동문이 경인지방통계 청 인천사무소장으로 영전했다. 심 동문 은 198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 4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경북도 관관공사 초대 사장으로



공원식(98/00행정)동 문이 경북도 관광공사 초대 사장으로 내정돼 오는 6월6일 부임한 다. 공동문은 포항시 시의회 의장과 경상북 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외환은행 부행장보 승진



정정희 동문(80/85영 문)이 외환은행 인사 에서 강남영업본부장 에서 임원으로 발탁되 어 여신그룹장으로 임 명된데 이어 3월 14일

집행부행장보에 선임됐다.



이시봉(86/90경영)

진식품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 영전



이성한(75/79경행) 동문이 지난 2월 27일 자로 부산지방경찰청장 으로 영전했다. 이 동 문은 충북지방경찰청장 으로 재직했다.

충북지방경찰청장 승진



구은수(78/85경행) 동문이 지난 2월 27일 자로 충북지방경찰청장 으로 승진했다. 구 동 문은 중앙경찰학교장으 로 재직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영전



서천호(92/00행원) 동문이 지난 2월 27일 자로 경기지방경찰청장 으로 승진했다. 서 동 문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으로 재직했다.

특허센터 IP본부장으로

강호근(83/87경제) 동문이 최근 R&D특 허센터 IP본부장으로 부임했다. 강 동문 은 1982년 공직을 시작해 경제기획원과 특허청에서 30여년간 근무해왔다.

선출·당선

동국대 ROTC 제1기 회장 피선



민경진(59/63경제, 에 스젠 본부장) 동문이 지난 2월 14일 열린 동국대 ROTC 1기 총 회에서 신임 회장으 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ROTC 제2기 회장 연임



전진표(60/64임학, (사)한국분재조합 부 회장)동문이 지난 4 월 10일 육군회관에 서 열린 제36차 대한 민국ROTC 제2기동기 회 정기총회에서 만

장일치로 회장에 재선출됐다.

웅진식품 대표이사 전무 선임

동문이 지난 4월 1일 자로 웅진식품 대표 이사 전무에 선임됐 다. 이동문은 그룹 인 재개발원장, 웅진씽크 빅 교육사업본부장, 웅

정연주 · 김정남 · 민병덕 동문 한국 100대 CEO에 선정되다







▲ 김정남 동문



▲ 민병덕 동문

정연주(69/73경영) 삼성물산 부회 장, 김정남(72/79행정) 동부화재 사장, 민병덕(74/81경영) KB국민은행장이 매경이코노미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 100대 CEO에 선정됐다. 올해 발표한 한국 100대 CEO에 선정된 모교 출신 동문은 3명으로, 이는 서울대(30명)와 고려대(16명), 연세대(12명), 경희대· 성균관대(4명)에 이어 여섯 번째다.

정연주 동문은 1976년 삼성물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정통 삼성맨으로 2010년부터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맡아 오고있다. 합리적이고 도전의식이 강

한 CEO로 삼성물산 전체 매출액 21조 5455억원으로 전년보다 21.3% 늘었다.

김정남 동문은 2010년 동부화재 사 장으로 부임한 이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84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 록하고, 각종 평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결실을 인정받고 있다.

민병덕 동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CEO가 되기까지 '영업의 달인' 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지런함과 열정을 보여왔다. KB국민은행은 빠르게 안정 되고 있으며, 실적 또한 눈에 띄게 좋 아지고 있다.

한국對테러정책학회 회장 피선



이윤호(74/78경행모 교 경찰행정학과 교 수)동문이 지난 2월 20일 한국대테러정책 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 다. 임기는 1년.

경기도 공직자 멘토 선정돼



일면스님(75/79승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 천본부 이사장)이 경 기도 공직자 멘토로 선정되어 위촉장을 받았다. 공무원 멘토 링은 존경받는 종교

계 지도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 및 일반 공무원들의 자신감 회복을 돕 고 가치관 확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취임



손창수(81/87한의,대 구경북지부 회장, 손 한의원 원장)동문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되 는 임기 3년의 대구시 한의사회 회장에 취 임됐다. 손 동문은 위

축된 국내 한의학계 르네상스를 위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강조했다.

여자농구 대표팀 감독 선임



이호근(84/88경영, 삼 성생명 감독)동문이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을 맡는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오는 6월25 일부터 7월1일까지 터 키 앙카라에서 열리

는 런던올림픽 최종예선전에 출전한다.

대한토목학회 홍보위원장 활약



최인걸(91/95대학원 토목, (주)유신 전무 이사) 동문이 대한토 목학회 제44대 홍보 위원장에 임명됐다. 최 동문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퀴즈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2년판과 국가인재DB 및 국가 R&D연구자에도 등재되어 있다.

대한인쇄정보연합회 회장 피선



고수곤(96/98언원, 전 광인쇄정보 대표이사) 동문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 린 대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임기 4년의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상 • 선정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



김종규(58/64경제, 삼 성출판박물관장)동문 이 지닌 5월21일 한국 박물관협회가 주관하 는 '제15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을 수상했 다. 최근 광화문문화

포럼 5대 회장이 됐다.

25회 동국 문학상 받아

허정자(65/69국문, 극제펜클럽한국본부 대구지역위원장)동문이 제 25회 동국문 학상을 받았다.

'현대미술 작가 유망주' 선정

조각가 이완(97/04미술학과) 동문이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유망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 100 명'에 선정되었다.

출판ㆍ전시

'성옥 이훈동 회장을 그리워하며' 발간



조선내화(주) 회장인 이화일(61/65상학) 동 문이 최근 선친인 이 훈동 회장의 유업과 소중한 추억들을 담 은 〈성옥 이훈동 회장 을 그리워하며〉를 발

간했다. 한 기업가의 흔들리지 않은 원 칙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모습과 평생 겸손한 미음과 낮은 자세 로 타인을 포용하고 봉사하는 진솔한 삶이 담겨 있다.

정년 및 출간 축하연 열려



이승영(64/68상학) 모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의 '정년 및 출 간 축하면'이 4월 21 일 모교 상록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하연 은 제자들이 학문연

구와 후학지도에 매진한 이승영 교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액션 테이커' 출판기념회



액션테이커

장정헌(64/67경영, 前 북미주 총동창회장, 유니뱅크 이사회 회 장)동문이 40여년간 이민 1세대로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의식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액 션 테이커〉를 출간해 지난 4월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당뇨, 물이 답이다'전자책 발간



장동락(70/77정외) 동문이 〈당뇨, 물이 답이다〉라는 전자책 을 발간했다. 당뇨병 은 우리나라에서 사 망 원인 중 네 번째 에 이르는 주요 질병

으로 매년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당뇨 환자만도 50만 명에 이른다.

제27회 조각전 '중중무진'



이점원(72/79미술, 모 교 경주캠퍼스 인문 과학대학장)동문이 지난 5월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제27 회 이점원 조각전 '중

중무진'전시회를 열었다.

성넉내왕신송 탁본 보교 기승



노병현(64/71사학, (주)진주랑 회장) 동 문이 지난3월 모교에 성덕대왕신종 탁본 '비천' 2점을 기증했 다.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시대의 범종

으로 종고 333cm, 구경 227cm. 국보 제29 호로 지정돼 있으며 타종은 물론 탁본 도 금지돼 있다.

저서 1백권 본회로 기증해와



정목스님(80/85 선 학, 방송인)이 지난4 월 자신의 저서 〈달팽 이가 느려도 늦지 않 다〉 1백권을 본회에 기증했다.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과 인터넷 유나방송으로 많은 청취자와 네티즌에게 위안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 는 정목스님의 정갈한 글이 담긴 이번 에세이는 감사, 자비, 분노, 사랑, 화해, 평화 등을 주제로 행복을 찾는 현대인 들에게 기쁨과 휴식의 정답을 선사한다.

대법원 인사

▲방승만(80/84경영)=대전지방법원 천 안지원 지원장

▲김제완(82/86법학)=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철(87/91정외)=창원지방법원 마 산지원 판사

▲이문세(91/99법학)=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1월 27일자)

결

▲이덕원(68/72사학, 정우양행 대표)=2 월12일 장녀 종선양 결혼

▲허봉주(87/89경원, 예림건설(주) 대표 이사)=2월26일 장남 영진군 결혼

▲유봉규(73/75농학)=3월10일 차녀 정수양 결혼

▲정창근(73/77무역, 모교 대외협력본부 장)=3월30일 장남 천호군 결혼

▲김재응(65/69경영)=3월31일 장남 민석군 결혼

▲김진억(73/80경영)=3월31일 장남 대환군 결혼 ▲이서행(67/71철학)=3월31일 차남

건국군 결혼 ▲박학수(64/68경영)=4월7일 차남

지환군 결혼 ▲방병무(65/69경행)=4월7일 아들

정환군 결혼 ▲유양훈(70/77경영)=4월7일 장녀 리양 결혼

▲정광훈(65/69상학)=4월14일 장남 문식군 결혼

▲오재관(67/71농경)=4월15일 장녀 안나양 결혼

▲이춘자(95/97경원)=4월15일 장녀 소연양 결혼

▲박정준(91/93행원)=4월28일 차녀 진희양 결혼

▲김태봉(73/77법학)=5월26일 장녀결혼

▲김재원(87/91법학)=5월 26일 본인결혼 ▲이정민(97/01광고 KBS앵커)= 5월29일

본인결혼 ▲김환배(68/72연로)=6월 9일 아들

종현군 결혼 ▲김영환(63/37정외)=6월 9일 딸

현정양 결혼 ▲강길희(68/72경영)=6월 9일 장남 현규 군 결혼

▲고재용(76/80화학)=6월 9일 딸 현주양 결혼

고

▲최정혁(64/66상학,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사 발인인 겸 회장)=1월24일 본인 별세

▲이현수(64/69상학)=3월29일 빙모상

▲김재수(84/88행정)=3월30일 본인 작고

▲이성수(68/72경행)=4월5일 부친상

▲정성열(70/74연영)=4월29일 모친상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수상 가족을 만나다

지난 5월7일 모교 개교106주년 기념식에서 전순표(53/57농학, 본회 24대 회장)동문 가족과 조충미(81/85교육)동문 가족이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은 모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동문이 5명 이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전순표 · 전진표 형제 가족



전찬우, 전진표, 전찬익 동문(왼쪽부터)이 지난 5월7일 모교를 찾았다.

모교 동국과 첫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전순표(농학 57졸·(주)세스코 회장, 제24대 총동창회장)동문이다. 그 후 "형제가 같은 곳에서 수학하는 것이어떻겠느냐"는 아버지의 권유로 동생전진표(임학 64졸)동문이 입학했다. 이어 조카 전찬익(농업경제학 82졸)동문, 전찬우(화학 90졸)동문, 김성도(행정09졸)동문이 입학을 한다. 김성도 동문은 같은 학과였던 강은별(행정 09졸)동문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고종사촌 김의수(건축공학 78졸)동문, 5촌 조카

박재홍(회계학 89졸)동문, 4촌 조카 정용수(건축공학3)군도 '동국'과 연을 맺었다. 그리고 사위 임중연(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교수까지 10명이 우리대 학과 인연을 맺고 있다.

조카·사위등 동국인만 10명 서로 만나면 '모교 소식' 부터

가족 간 우애가 깊은 만큼 모교 입학 결정에도 가족의 권유가 가장 컸다. 전진표 동문은 재학 중이던 형의 모습에서 우리대학의 미래를 믿고 입학을 결심하게 된다. 뒤이어 조카 전찬익 동 문도 전순표 동문의 권유로 입학한다. "당시 농업경제학은 생소한 학문이었어요. 그 학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와 동국대의 미래를 믿고 선택하게 되었죠."

어느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이들 가족은 동국대 출신임을 당당히 말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깊다. 모교사랑은 가족들에게서도 공통된 점이다. 그런 만큼 현재 우리대학 캠퍼스의좋아진 모습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을주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만수 · 조충미 부부 가족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한 이만수(왼쪽)·조충미동문

이번 제5회 동국가족상을 수상한 조충미(교육 85졸) 동문 가족은 조 동문을 비롯해 조충국(사회개발 83졸), 조충철(농생 90졸) 3남매가 모교를 졸업했다. 또한 조충미 동문의 배우자인 이만수(체교 85졸) 동문과 사촌 동생 조충권(영문 95졸) 동문, 조카사위 박종수(통계 93졸) 동문, 조카 박기범(건축2) 군까지 총 7명의 가족이 동악의 품에서 꿈을 키웠고 현재 진행중이다.

조충미 동문이 평생 배필인 이만수

동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 였다. 당시 학도호국단 여학생부 차장 이었던 조 동문은 체육부 차장인 친구 를 통해 이 동문을 소개 받아 2년간 친구 사이로 지냈다.

조충미 3남매 후회없이 선택 동문 사랑 받는 모교 되어야

2년간 인사만 나누던 두 동문은 84년 축제 당시 지금의 연을 맺었고 마침내 졸업 후 1987년 10월 31일에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다. 이만수 동문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웃음). 동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조 동문은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모교가 자랑스러웠고 추억도 많 아 친동생 조충철, 사촌동생 조충권, 조카 박기범 군에게도 동국대 입학을 당당히 권했다고 전했다.

ROTC 23기인 이 동문은 전역 후 삼 진제약에 근무중이고, 조충미 동문은 불교방송 리포터 등을 거쳐 오랫동안 외국어학원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유학 원을 운영중이다.



땟목탐험에 나선 윤명철 동문

윤명철 동문 뗏목탐험 대장정

윤명철(74/81사학, 모교 교양교육원 교수) 동문이 지난 5월29일 새벽 (28일 현지시간) 필리핀과 타이완, 일본 오끼나와를 거쳐 여수에 입항하는 4천km의 뗏목탐험을 위해 필리핀 루손섬 북부 라오깃에서 〈3, 동아문명호〉를 출항했다.

윤 동문이 이끄는 뗏목탐험은 필리 핀 출항을 시작으로 타이완 남부를 경 유해 오끼나와와 이어도, 제주도를 거 쳐 여수 해양엑스포박람회장까지 총 4000km를 항해하는 초유의 뗏목탐험이다.

탐험대원은 대장인 윤명철(동국대 교양교육원)동문을 비롯 안동주, 최윤수 대원 및 필리핀인 라수스 등 4명의 탐험대원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솔프로덕션 최세영 감독 등 모두 5명이다.

이번 탐험은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동남아시아 문화와 동아시아 및 한 민족 문화간의 연관성을 추적, 탐색하는 항로로 진행된다.

한편 출항식에는 필리핀 현지인들과 현지 방송국 TV 및 라디오관계자, 그 리고 필리핀 협찬사인 액션라디오가 참여해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항해에는 국내최초로 통신 위성 을 이용하여 영상을 송출함은 물론, 위 성통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등을 이 용, 망망대해 무동력 뗏목 위에서 윤명 철 동문의 특강도 가질 예정이다.

Signature Control of the control of

- · 1963년 동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 1987년 대통령 표창
- ·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
- · 2010년 7월~ 전남 여수시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수 하면 가장 먼저 '낭만의 도시' 가 떠오른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의 밤바다가 떠오른다. 이번 여름에는 밤바다를 곱고 화려하게 물들이는 항구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여수에 가야겠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볼거리니 여수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단지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머물렀던 여수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향해 높이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오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93일간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 세계가 여수를예의 주시하고 있다. 세계인의 신선이 모아지고 있는여수의 힘찬 도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총동창회 부회장 김충석(61/63상학) 여수시장과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 뜻 깊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바다'를 주제로 106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가, 유치 목표 관람객만 해도 1080만명이고 외국인은 55만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될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며, 여수는 세계 4대 미항으로 거듭난다.

"여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치르는 여수시장 김충석 동문

"여수를 세계 4대 미항으로 만들겠다"

운 항구도시입니다. 아직 여수에 한번도 안 오신 분들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꼭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수는 낮에 와도 볼거리가 많지만, 밤바다를 아름다운 불빛으로 촘촘히 수놓는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가족들과 함께 여수에 와서 각종 전시관도 둘러보고 이벤트에도 참여해보고 돌산, 갓 등의 농산물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해산물도 맘껏 드시고 가길 바랍니다. 또한 여수는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합니다. 여수는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삼도수군통제영으로 420년 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풍전등화에 처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성지입니다."

만나자마자 여수에 대한 자랑부터 늘어놓는 김충석 여수시장의 여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짐작할수 있었다. 또한 며칠 후면 지난 15년간 여수 시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꿈꿔왔던 결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를 시정기치로 내세우고, 오로지'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 하나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언젠가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기왕에 할 일이면 잘하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내딛은 결과 세계를 깜짝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우리 앞에 펼쳐 보였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바다'슬로건 106개국의 참가로 풍성한 볼거리 제공 편리한 교통망 등 완벽하게 행사 준비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설치되는 엑스포 주제관, 106개 참가국들이 운영할 국제관 등 주제와 연관된 시설물과 한국의 IT기술이 접목된 Blg-0, 디지털갤러리, 스카이타워, 아쿠아리움 등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한 볼거리가 연출됩니다. 그러한볼거리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교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라선KTX가 10월 5일 개통되어 서울에서 KTX를 타고 여수까지는 3시간 41분밖에 안 걸립니다. 더욱이 이순신대교와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과 경남, 목포권에서는 2시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내교통의경우에도 박람회장 주변의 도로가 확장, 정비되었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박람회 종합관제센터

를 준공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 하고 넉넉한 주차 공감을 확보하는 등 여수를 찾은 분들 이 불편함 없이 여수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또한 불편함 없이 마련되어 있다. 엑스포 4대 시민운동과 승용차 안타기 운동, 바가지요금 안 받기 등 여수는 많은 국내외 손님들을 맞기 위해 스 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테러, 자연재해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촌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먹고, 놀고, 보 고, 쉬면서 여수의 모든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여수박람회만의 차별화된 즐길거리 또한 무궁무 진합니다. 먼저 거대한 해상무대인 'BIG-O'에서 박 람회 기간 중에 매일 밤 홀로그램 영상, 레이저쇼, 초대형 분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여 러분은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그동안 그 어디에 서도 관람하지 못했던 환상적인 뉴미디어쇼를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와 55미터 높이의 지상 최대 옥외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타 워'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수조용량이 6,030톤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해 양생물관) 에서는 각종 희귀 생물을 감상할 수 있는 데, 아이들과 함께 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살아 있 는 현장학습의 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국 들의 문화 공연과 러시아 볼쇼이 아이스발레단을 공연 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서커스의 공연과 지역 향토 문 화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이번 여수해양엑스포를 계기로 동문들에게 세계인의 축제에 동참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주연 동문〉



5월12부터 세계인을 맞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2년 1월 17일~ 2012년 5월 31일 접수분〉

고문 분담금





김재기 (56/60경제) 김희옥 (68/72법학) 김희형 (56/60정치)









박종윤 (56/59경제) **윤일균** (67/69행원) **자승스님** (09/불원) **전순표** (53/57농학) 고 문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구자선 (79/81경원) 김규태 (93/95행원)

부회장 회비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김오현 (76/80체교) 김진선 (71/74행정)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김진억 (73/80경영) 김진하 (71/75무역) 김충석 (61/63상학) 나동연 (80/84무역) 노준식 (58/62정치) 류수택 (60/67경영) 민병덕 (74/81경영) 박미서 (06/10국악) 박상호 (64/68법학)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선묵혜자스님 (96/98불원) 서정호 (71/76경영)



부회장 100**만원**



성웅스님(91/93불원) 성해스님 (88/90교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손학중 (65/69농경)



수인스님 (98/00선학)



안병호 (78/79경원)



유정환 (03/07경영)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윤부성 (61/63생물)









이상현 (54/58경제) 이승성 (76/77제교) 이시우 (91/93행원) 이희경 (68/75경행)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장성호(99/02사원) 20

▲장세균(67/72철학) 20





▲김상종(62/66농경) 10

▲김성지(84/91전산) 10



▲손호중(91/93행원) 10

▲송경옥(84/88연영) 10

▲신남선(84/88법학) 10

▲신창식(80/85경제) 10

▲신현태(54/57경제) 10

▲신형철(77/81체교) 10



일면스님 (75/ 승가) **장세풍** (59/65경제) **정목스님** (80/85전학) **정창근** (73/77무역) **차민수** (69/73경제) **채규민** (58/75정치) **최진식** (77/83무역)









한우삼 (63/69농학) **허수창** (08/08불원)



▲지해식(59/63불교) 30

▲김희수(00/01사원) 20

▲문준수(69/74인철) 20

▲박상관(79/86행정) 20



이홍섭 (80/84회계) 부회장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감 사 100만원

고문 분담금 ▲이민휘(52/56정치) 30

부회장회비 ▲강병국(64/68농경) 30 ▲이상선(72/76법학) 50 ▲정동진(65/69국문) 30 ▲현각스님(78/82인철) 50

지도위원회비 ▲ 경하스님(72/73행원) 30 ▲고광윤(61/65농학) 30 ▲권기종(63/64불교) 20 ▲김갑주(65/69대원) 30 ▲김보열(57/62경제) 30 ▲김성강(60/04법학) 30 ▲김시배(54/58경제) 30 ▲김용모(57/59경제) 30 ▲김유광(57/63영문) 30 ▲김종규(58/64경제) 30 ▲김종서(59/63법학) 30 ▲명성스님(64/68불교) 30 ▲박은규(59/61정치) 30 ▲심춘섭(57/61정치) 30 ▲이광세(86/88경원) 30

▲이기화(57/59경제) 30

▲이융성(59/63법학) 30

▲정동귀(57/59정치) 1

▲정진영(58/65경제) 30

▲허정식(62/66경영) 30 ▲허천택(56/61영문) 30 ▲홍영춘(61/65불교) 30 상임이사회비 ▲ 각현스님(85/87행원) 20 ▲강경순(92/93경원) 20 ▲강길희(67/72경영) 20 ▲계성스님(78/81승가) 20 ▲김광철(76/83경행) 20 ▲김래동(80/81행원) 20 ▲김문선(79/83전자) 20 ▲김사홍(79/80행원) 20 ▲김용구(70/74농경) 20 ▲김운락(00/04법학) 20 ▲김윤종(66/73정외) 20 ▲김종찬(94/97경영) 20 ▲김종호(80/84국교) 20 ▲김진방(64/67경제) 20 ▲김창기(95/97경원) 20 ▲김창환(65/67경영) 20 ▲김태원(72/77체교) 20 ▲김태현(84/89불교) 20 ▲김학진(66/70농경) 20 ▲이춘필(99/01불원) 20

▲박재신(77/81공경) 10 ▲박하서(97/01사원) 20 ▲방조원(77/78행원) 20 ▲법운스님(95/97불원) 20 ▲손일환(93/94사원) 20 ▲양규철(64/68농학) 20 ▲오만식(90/92언원) 20 ▲오수환(84/88법학) 20 ▲오재관(67/71농경) 22 ▲오학선(92/96행원) 20 ▲위종성(64/71농경) 20 ▲윤만진(94/96경원) 20 ▲윤용숙(93/95불원) 20 ▲이경석(67/71도공) 20 ▲이계영(73/80전산) 20 ▲이규상(55/58경제) 20 ▲이능희(60/65상학) 20 ▲이성수(68/72경행) 20 ▲이성한(75/79경행) 20 ▲이재용(64/71상학) 20 ▲이재호(79/81경원) 20 ▲이점구(96/99산원) 20 ▲이창수(80/88회계) 20

▲이출재(97/00산원) 20

▲이학송(78/82불교) 20

▲장동락(70/77정외) 10

▲정범스님(88/92경행) 20 ▲김수창(65/69불교) 10 ▲정사균(95/96사원) 20 ▲김영린(64/77법학) 10 ▲조규철(76/83경행) 20 ▲김영석(87/91법학) 10 ▲조시영(86/90회계) 20 ▲김영윤(76/83정외) 10 ▲ 진각스님(88/92로얄) 20 ▲최병식(59/64불교) 20 ▲최영철(95/97불원) 20 ▲최용환(64/67농학) 20 ▲태진스님(98/02불원) 20 ▲하동우(76/80전산) 20 ▲하만장(90/92경원) 20 ▲하정남(68/72경행) 20 ▲허남윤(97/98사원) 20 ▲홍석표(75/82경영) 20 ▲황경환(87/89교원) 20 ▲황성모(74/78경행) 20 이사회비 ▲강길용(87/91경제) 10 ▲강희석(97/00호텔) 10 ▲고재용(76/80화학) 10 ▲구학모(90/92행원) 10 ▲국기일(58/63경제) 10 ▲권중원(64/68상학) 10 ▲권홍표(74/80식공) 10 ▲길 육(70/72행원) 10 ▲김규태(48/52영문) 10 ▲김난영(82/86경행) 10 ▲김동길(93/95경원) 10 ▲김득응(83/88사회) 10 ▲김명길(70/74공경) 10 ▲김명희(85/89미술) 10

▲김문겸(64/68농경) 10

▲김병우(65/69응생) 10

▲김병호(68/72법학) 10

▲김용선(73/77사교) 10 ▲김인순(80/81경원) 10 ▲김재권(79/82경행) 10 ▲김정길(64/68인철) 10 ▲김정호(79/82행정) 10 ▲김종만(65/69경행) 10 ▲김진길(72/78행정) 10 ▲김태용(91/93행원) 10 ▲김택용(00/01사원) 10 ▲나영수(63/65국문) 10 ▲나유인(77/81경행) 10 ▲무염스님(92/94불원) 10 ▲민경진(59/63경제) 10 ▲민병휘(63/67상학) 10 ▲박명준(71/78건축) 10 ▲박봉준(77/85경제) 10 ▲박상문(64/66국문) 10 ▲박영동(76/80불교) 2 ▲박정준(91/93행원) 10 ▲박학수(64/68경영) 10 ▲배보영(97/00불원) 10 ▲배상덕(82/89경제) 10 ▲배종하(88/90경원) 10 ▲배충남(62/66상학) 10 ▲백경선(80/84불교) 10 ▲설재윤(92/97경행) 10 ▲성백열(07/09행원) 10 ▲성순경(93/95불원) 10

▲김완규(63/70농학) 10 ▲심현설(63/65경제) 10 ▲김완규(89/93불교) 10 ▲양수성(61/65경영) 10 ▲오선호(84/88영문) 10 ▲유병돈(73/80공경) 10 ▲유연상(85/89경행) 10 ▲이경구(58/65법학) 10 ▲이경범(65/69경행) 10 ▲이권학(86/92인철) 10 ▲이덕기(76/83국교) 10 ▲이병노(86/91경행) 10 ▲이상구(81/88인철) 10 ▲이서행(67/71철학) 10 ▲이성복(71/75전자) 10 ▲이송림(65/ 정외) 10 ▲이순호(01/02사원) 20 ▲이영옥(84/90무역) 10 ▲이인배(92/94경원) 10 ▲이인진(60/63법학) 10 ▲이장화(84/88무역) 10 ▲이제근(69/73경제) 10 ▲이종관(63/67통계) 10 ▲이창억(49/52정치) 10 ▲이춘자(95/97경원) 10 ▲임상진(84/91정외) 10 ▲임 준(81/85체교) 10 ▲장대종(68/72경행) 10 ▲전병용(77/84경행) 10 ▲전신섭(89/91경원) 10 ▲전진표(60/64임학) 10 ▲전찬우(84/91화학) 10

▲정찬석(83/90경행) 10 ▲정현필(75/79사학) 10 ▲정호경(95/97불원) 10 ▲정훈모(78/86정외) 10 ▲제정스님(89/93대원) 10 ▲조규진(93/95경원) 10 ▲조남현(73/80무역) 10 ▲조석규(68/72도공) 10 ▲조수길(87/91법학) 10 ▲조원상(74/78전자) 10 ▲조정곤(59/62법학) 10 ▲조중진(54/58정치) 10 ▲조창원(55/57경제) 10 ▲조현석(89/95한의) 10 ▲조홍기(58/63영문) 10 ▲진성스님(04/07불원) 10 ▲진창훈(66/70상학) 10 ▲차진구(78/82건축) 10 ▲차형천(72/82정외) 10 ▲최병곤(84/86경원) 10 ▲최병순(04/08통상) 20 ▲최석권(84/88법학) 10 ▲최용봉(78/82식공) 20 ▲강진모(86/92농생) 2 ▲최지섭(69/76경제) 10 ▲강춘매(97/99불원) 2 ▲추교춘(02/03사원) 10 ▲고상영(85/90전산) 2 ▲하진수(61/65정치) 10 ▲고상원(64/71상학) 2 ▲학산스님(07/08불문) 10 ▲고성길(64/68통계) 2 ▲한경구(61/64임학) 10 ▲고영종(58/62경제) 2 ▲한규범(78/80경원) 10 ▲고재선(78/85행정) 2 ▲한대현(89/91경원) 10 ▲고재원(80/86식공) 2 ▲한성규(65/69물리) 10 ▲고제선(88/94선학) 2 ▲한은정(94/99윤리) 2 ▲고창식(79/83전기) 2 ▲허남태(80/87조경) 10 ▲고창환(64/68경영) 2 ▲홍성하(65/72응생) 20 ▲고천주(68/75전자) 2 ▲홍형덕(49/53정치) 10 ▲고태복(69/76식공) 2 ▲황길상(84/88국문) 2

평생회비 ▲김수기(61/65경제) 30 일반회비 ▲강군식(69/77행정) 2 ▲강덕천(76/83화공) 2 ▲강무등(64/70농경) 2 ▲강병도(78/84공경) 2 ▲강서일(73/77영문) 2 ▲강석우(77/81연영) 2 ▲강석일(95/02중문) 2 ▲강석재(94/98경영) 2 ▲강성길(87/94무역) 2 ▲강성범(02/04불문) 2 ▲강수창(63/66상학) 2 ▲강애영(83/87철학) 2 ▲강연희(04/08통상) 2 ▲강영덕(66/74상학) 2 ▲강용산(01/05경영) 2 ▲강의선(85/91행원) 2 ▲강익수(77/85건축) 2 ▲강재홍(84/91식공) 2 ▲강정훈(89/95산공) 2

. =====================================	. 715 -1/74 /7071-7\ 0	. 71044/50/571 - 71/ 0	. 71-101/04/007401/ 0	. =1 01 11 (00 (0.1 =1101) 0			. 01=111/00/70=10\ 0
▲고형종(64/72국문) 2	▲김동철(71/78건축) 2	▲김영봉(53/57농학) 2	▲김찬익(04/06경원) 2	▲마영복(89/91행원) 2	▲박진수(60/63국문) 2	▲서행원(78/83국사교) 2	▲안한상(66/70국문) 2
▲고희신(86/92의학) 2	▲김동필(56/58사학) 2	▲김영진(78/82행정) 2	▲김창수(59/62경제) 2	▲맹주옥(83/90행정) 2	▲박창규(82/86무역) 2	▲석수암 2	▲양경숙(97/00교원) 2
▲공기태(79/86화공) 2	▲김두겸(93/95행원) 2	▲김영진(83/87회계) 2	▲김창식(63/65국문) 2	▲명호근(04/ 불원) 2	▲박창규(87/91법학) 2	▲선운사 2	▲양금식(61/65행정) 2
▲공영두(94/96행원) 2	▲김득규(59/64사학) 2	▲김영호(79/83무역) 2	▲김창훈(72/79식공) 2	▲ 무량스님(95/96불원) 2	▲박청규(73/79경행) 2	▲선종현(58/60법학) 2	▲양산사 2
▲공진식(57/61경제) 2	▲김만두(58/64정치) 2	▲김영호(99/01경원) 2	▲김철완(88/96법학) 2	▲무학사 2	▲박치복(57/60정치) 2	▲설안스님(00/01대원) 2	▲양승렬(60/64연극) 2
▲공희준(88/94정외) 2	▲김명기(74/77가교) 2	▲김영화(63/67경행) 2	▲김철주(74/79전산) 2	▲문공식(66/70연영) 2	▲박태술(58/64경제) 2	▲성기호(61/65상학) 2	▲양용호(82/88대원) 2
▲곽노경(73/80경제) 2	▲김명석(85/92정외) 2	▲김오중(51/55경제) 2	▲김춘수(81/88화공) 2	▲문대성(56/59정치) 2	▲박태원(65/69국문) 2	▲소림사 2 · ^ 라즈(73 (73 (50 F B) 2	▲양원모(05/08사원) 2
▲곽영국(79/86무역) 2	▲김명실(80/84불교) 2	▲김용근(76/80공경) 2	▲김충환(70/74경제) 2	▲문병천(73/81통계) 2	▲박판길(85/87행원) 2	▲손경중(77/79토목) 2	▲양재국(93/95불원) 2
▲곽영철(92/94행원) 2	▲김명자(86/88교원) 2	▲김용덕(73/76건축) 2	▲김태범(84/88무역) 2	▲문진환(69/74국교) 2	▲박학률(84/87경원) 2	▲손락상(84/88행정) 2	▲양주관(59/61법학) 2
▲곽종석(65/71경제) 2	▲김문광(85/92회계) 2	▲김용성(93/99교육) 2	▲김태유(57/61경제) 2	▲민경선(77/81농경) 2	▲박해롱(67/71경행) 2	▲손병성(80/87화학) 2	▲양중모(64/66국문) 2
▲관음사 2	▲김문재(84/89국문) 2	▲김용순(58/64임학) 2	▲김택유(79/83경제) 2	▲민경진(59/63경제) 2	▲박해춘(59/61경제) 2	▲손본수(67/70상학) 2	▲양호철(97/99행원) 2
▲광명암 2	▲김민경(91/95수교) 2	▲김용옥(84/92경제) 2	▲김판근(66/70경행) 2	▲민병옥(71/78건축) 2	▲박 혁(89/96물리) 2	▲손상필(62/66경제) 2	▲엄정식(90/96수교) 2
▲구상량(58/62법학) 2	▲김민경(98/02연영) 2	▲김용욱 2	▲김학석(83/90윤리) 2	▲민병진(58/62정치) 2	▲박현우(00/02사원) 2	▲손세명(68/72법학) 2	▲엄종호(56/60법학) 2
▲권도안(87/91사회) 2	▲김민수(84/88경영) 2	▲김용원(01/02사원) 2	▲김학진(83/90토목) 2	▲민수영(59/65정치) 2	▲박형모(64/72경제) 2	▲손유동(75/79행정) 2	▲엄충식(86/90식공) 2
▲권도형(84/91일문) 2	▲김방근(68/75경영) 2	▲김용임(83/87윤리) 2	▲김한기(03/05행원) 2	▲민웅식(57/ 경제) 2	▲박호현(74/81사학) 2	▲손종호(82/89무역) 2	▲여상식(78/82회계) 2
▲권범기(97/99행원) 2	▲김배현(87/89행원) 2	▲김용흥(64/75경행) 2	▲김한성(85/91한의) 2	▲민현석(61/65국문) 2	▲박홍열(70/74경영) 2	▲손해순(83/87불교) 2	▲여은규(55/60영문) 2
▲권순일(62/67국문) 2	▲김백한(59/64법학) 2	▲김 웅(82/88한문) 2	▲김해동(91/93언원) 2	▲박경선(97/99북한) 2	▲박화재(05/ 경원) 2	▲송광사 2	▲여인근(58/64임학) 2
▲권우택(67/71농경) 2	▲김병구(61/63경제) 2	▲김원주(71/74토목) 2	▲김현정(79/ 물리) 2	▲박광래(58/61경제) 2	▲박 훈(73/74경원) 2	▲송귀현(72/79연영) 2	▲여환준(67/71법학) 2
▲권정의(98/00대원) 2	▲김병상(58/60경제) 2	▲김원철(68/75영문) 2	▲김현진(87/94법학) 2	▲박광태(61/63국문) 2	▲박희익(63/65상학) 2	▲송기훈(65/71경제) 2	▲연지암 2
▲권정호(92/99전기) 2	▲김병시(73/74행원) 2	▲김유련(71/77경영) 2	▲김현팔(64/68국문) 2	▲박광호(74/78농생) 2	▲반경선(69/76국교) 2	▲송림사 2	▲영선사 2
▲권준안(80/86회계) 2	▲김병은(92/94행원) 2	▲김윤규(67/73식공) 2	▲김현표(80/84전기) 2	▲박광휘(64/68농학) 2	▲ 반야사 2	▲송무훈(55/61법학) 2	▲오경택(86/90수학) 2
▲권진영(87/91불교) 2	▲김병택(71/77대원) 2	▲김윤기(64/71임학) 2	▲김현호(56/60영문) 2	▲박노훈(72/76사교) 2	▲ 반용사 2	▲송부용(78/82농경) 2	▲오국근(55/58영문) 2
▲권태범(70/74수교) 2	▲김병택(79/86화공) 2	▲김윤남(92/95경원) 2	▲김형기(66/73농경) 2	▲박덕준(88/92경영) 2	▲배경구(81/86경영) 2	▲송부자(61/65사학) 2	▲오근옥(72/82회계) 2
▲권태상(77/81국교) 2	▲김보현(69/73정외) 2	▲김윤선(81/88수교) 2	▲김형석(93/95행원) 2	▲박동명(07/10행원) 2	▲배덕진(81/85식공) 2	▲송수용(94/96행원) 2	▲오성태(86/90경행) 2
▲권태석(74/78영문) 2	▲김복수(61/67상학) 2	▲김윤숙(75/79무역) 2	▲김형수(02/04언원) 2	▲박동준(05/07대원) 2	▲배만호(83/89행정) 2	▲송승훈(01/08전기) 2	▲오세청(60/67상학) 2
▲권하나(00/04중문) 2	▲김봉수(64/68통계) 2	▲김윤종(89/94경제) 2	▲김형식(00/03경원) 2	▲박동해(58/65법학) 2	▲배병원(73/80통계) 2	▲송용순(83/87철학) 2	▲오수경(61/65수학) 2
▲권혁룡(97/00행원) 2	▲김봉식(62/65불교) 2	▲김은겸(86/92농학) 2	▲김형준(89/97전기) 2	▲박동훈(03/06경원) 2	▲배상덕(94/98북한) 2	▲송윤석(84/91경제) 2	▲오완석(90/97농생) 2
▲권혁희(83/85행원) 2	▲김부남(63/70식공) 2	▲김은희(90/94통계) 2	▲김호성(95/02경영) 2	▲박두호(63/67경행) 2	▲배용성(64/70경제) 2	▲송윤용(84/85행원) 2	▲오응준(88/98물리) 5
▲금용사 2	▲김부동(88/90교원) 2	▲김응조(58/64불교) 2	▲김홍기(72/79무역) 2	▲박래학(61/65경제) 2	▲배장식(78/82전자) 2	▲송자선(88/92일문) 2	▲오인복(84/88가교) 2
▲금화사 2	▲김상규(82/84경원) 2	▲김의권(82/89전기) 2	▲김홍렬(59/65경영) 2	▲박명호(71/78화공) 2	▲배주환(77/79전기) 2	▲송재관(64/69행정) 2	▲오인종(92/94경원) 2
▲기림사 2	▲김상규(98/99국원) 2	▲김이근(61/65농학) 2	▲김홍원(99/07경행) 2	▲박무일(87/89행원) 2	▲백대성(69/73연료) 2	▲송재신(58/62법학) 2	▲오준철(79/85행정) 2
▲기봉준(65/72식공) 2	▲김상균(82/86경행) 2	▲김익배(79/86무역) 2	▲김홍철(60/65경제) 2	▲박문고(70/78무역) 2	▲백봉렬(77/81회계) 2	▲송재훈(98/06경제) 2	▲오진석(97/05경제) 2
▲기인종(69/73경제) 2	▲김상기(94/96불원) 2	▲김인범(85/89법학) 2	▲김환규(60/62정치) 2	▲박병호(87/93정관) 2	▲백승만(63/69국문) 2	▲송제면(67/ 경영) 2	▲오창수(97/99불원) 2
▲길승진(85/89지교) 2	▲김상돈(96/99반도체) 2	▲김인식(00/04정통) 2	▲김흥식(64/71임학) 2	▲박부남(98/00불원) 2	▲백승운(87/91경영) 2	▲송지훈(08/11통상) 10	▲오태갑(58/61정치) 2
▲길화식(89/91행원) 2	▲김상배(68/72공경) 2	▲김인식(64/71경제) 2	▲김희동(00/04경영) 2	▲박상신(79/83화학) 2	▲백옥미(80/84승가) 2	▲송호택(82/90경영) 2	▲왕수일(83/87무역) 2
▲김갑수(76/83경제) 2	▲김상수(67/71경영) 2	▲김인태(57/61영문) 2	▲김희환(58/63임학) 2	▲박상일(62/66농학) 2	▲백용운(90/95건축) 2	▲송희민(57/62정치) 2	▲용화사 2
▲김강호(58/62경제) 2	▲김상용(83/91법학) 2	▲김인현(81/85선학) 2	▲나덕찬(84/88회계) 2	▲박상재(87/91행정) 2	▲백용웅(82/84행원) 2	▲수월암 2	▲우근식(98/01경원) 2
▲김경남(68/72국문) 2	▲김상욱(90/97화학) 2	▲김재경(64/73법학) 2	▲나언표(56/59경제) 2	▲박상훈(90/98경제) 2	▲백운사 2	▲수종사 2	▲우정스님(96/98불원) 2
▲김경미(98/00불원) 2	▲김상일(83/87농학) 2	▲김재문(60/62법학) 2	▲남궁곤(83/91전산) 2	▲박성경(98/06경영) 2	▲백운주(99/01체교) 2	▲수타사 2	▲우종환(84/88회계) 2
▲김경석(58/63경제) 2	▲김상훈(96/99행원) 2	▲김재수(86/88행원) 2	▲남궁철(81/85회계) 2	▲박성무(65/68정외) 2	▲백주호(60/64행정) 2	▲신개복(83/90국사교) 2	▲우철수(83/90전자) 2
▲김경선(82/88한의) 2	▲김석래(79/86전기) 2	▲김재옥(86/87행원) 2	▲남금광(63/69상학) 2	▲박성조(95/99회계) 2	▲법장사 2	▲신동기(03/05행원) 2	▲우철희(89/93경제) 2
▲김경자(92/01대원) 2	▲김석렬(90/93언원) 2	▲김재원(87/91법학) 10	▲남기석(55/61법학) 2	▲박성진(60/62정치) 2	▲법흥사 2	▲신동화(61/65식공) 2	▲우희영(61/65영문) 2
▲김경자(96/00선학) 2	▲김석철(82/87통계) 2	▲김재원(87/91법학) 10	▲남병국(61/64법학) 2	▲박수창(57/61국문) 2	▲변능남(00/02불원) 2	▲신범철(55/62물리) 2	▲운산스님(60/64불교) 2
▲김계성(83/87영문) 2	▲김선기(75/82전산) 2	▲김재윤(91/97체교) 2	▲남상근(71/78농경) 2	▲박순걸(59/63경영) 2	▲변민우(87/93행정) 2	▲신석희(60/64사학) 2	▲원경스님(95/96불원) 2
▲김관수(88/95법학) 2	▲김선영(78/82전자) 2	▲김재현(87/94경영) 2	▲남상돈(85/91수교) 2	▲박양수(71/77임학) 2	▲변봉현(67/71자동) 2	▲신승갑(64/72통계) 2	▲원명사 2
▲김광덕(71/79영문) 2	▲김선흥(61/65법학) 2	▲김재호(08/ 사원) 2	▲남시혁(54/58정치) 2	▲박영란(88/92국교) 2	▲변성춘(89/95화학) 2	▲신영옥(95/97불원) 2	▲원영상(62/63경제) 2
▲김광복(94/97행원) 2	▲김성광(65/67상학) 2	▲김재희(75/79화학) 2	▲남원사 2	▲박영록(68/75경영) 2	▲변윤섭(65/76정외) 2	▲신용우(56/59경제) 2	▲원종길(61/65농학) 2
▲김광섭(61/65법학) 2	▲김성근(77/83행정) 2	▲김정남(83/87수교) 2	▲남택운(72/82회계) 2	▲박영만(83/90전기) 2	▲변재화(84/86행원) 2	▲신용인(84/86행원) 2	▲원종대(61/65정치) 2
▲김광중(78/84임학) 2	▲김성말(59/65경제) 2	▲김정례(83/87교육) 2	▲내소사 2	▲박영석(85/89행원) 2	▲변종민(67/74상학) 2	▲신용현(80/86한의) 2	▲원철스님(01/03불문) 2
▲김교일(85/87경원) 2	▲김성민(89/96경영) 2	▲김정인(80/83행원) 2	▲노기철(89/91경원) 2	▲박영찬(79/86공경) 2	▲보광사 2	▲신우철(67/70경영) 2	▲원치선(95/03경영) 2
▲김기덕(83/89행정) 2	▲김성열(92/99경영) 2	▲김정현(90/96윤리) 2	▲노수길(65/69경영) 2	▲박영태(85/89수학) 2	▲보덕사 2	▲신원사 2	▲월정사 2
▲김기복(87/89행원) 2	▲김성엽(03/05법학) 2	▲김종렬(70/78불교) 2	▲노여진(03/07국교) 2	▲박영희(89/91경원) 2	▲보덕스님(05/07불문) 2	▲신재근(81/88경영) 2	▲유경철(92/99전자) 2
▲김기수(58/64법학) 2	▲김성우(83/86경원) 2	▲김종민(69/76공경) 2	▲노재한(71/75식공) 2	▲박완순(85/89영문) 2	▲보림사 2	▲신진희(97/01수교) 2	▲유광진(73/81전기) 2
▲김기수(92/96행원) 2	▲김성원(98/00경원) 2 ▲김성원(98/00경원) 2	▲김종상(79/83회계) 2	▲ 담교스님(95/99교원) 2	▲박용기(83/89한의) 2	▲보문사 2	▲신충기(70/74행정) 2 ▲신충기(70/74행정) 2	▲유광천(73/61천기) 2 ▲유광희(64/68응생) 2
	▲김성조(82/85행원) 2	▲김종서(03/06대원) 2		▲박용수(93/95행원) 2	▲보현사 2	▲신태환(63/67법학) 2	
▲김기우(90/94법학) 2 ▲김기일(73/77전산) 2	▲김성조(82/83행권) 2 ▲김성주(83/87국교) 2	▲김종형(98/00불원) 2	▲대각사 2 ▲대성사 2	▲박윤식(79/86사회) 2	▲보현사 2 ▲보현사 2	▲신대완(63/67합약) 2 ▲신현숙(81/83대원) 2	▲유기준(61/65연극) 2 ▲유명호(60/63영문) 2
▲김기포(73/80경제) 2 ▲김기포(73/80경제) 2	▲김성호(93/95행원) 2	▲김종호(/63수학) 2	▲대용스님(88/92선학) 2	▲박은주(00/04경원) 2	▲ 봉수사 2	▲신현숙(81/83대원) 2 ▲신현철(71/79무역) 2	▲유상갑(64/66법학) 2
			▲대용스님(98/00불원) 2			▲신현철(92/99정관) 2 ▲신현철(92/99정관) 2	
▲김낙현(82/86체교) 2 ▲김남선(72/79정외) 2	▲김성환(65/73화학) 2 ▲김소연(99/06연극) 2	▲김종환(61/65불교) 2 ▲김주갑(60/64법학) 2	▲데등스러(96/00물년) 2 ▲덕운사 2	▲박익주(59/61정치) 2 ▲박 일(56/59정치) 2	▲불영사 2 ▲불주사 2	▲신형경(93/95행원) 2 ▲신형경(93/95행원) 2	▲유상번(70/75행정) 2 ▲유상현(64/68행정) 2
▲김남수(75/80영문) 2	▲김송래(98/00불원) 2	▲김주영(07/ 대원) 2	▲ 덕순시 ▲ 덕현스님(89/93불교) 2	▲박장서(57/59사학) 2	▲ 비래사 2	▲신호중(76/83통계) 2	▲유세희(86/92농생) 2 ▲유세희(86/92농생) 2
▲김내환(77/85회계) 2				▲박재원(57/68경제) 2			▲유승권(56/60법학) 2
(,, -	▲김수년(76/83통계) 2 ▲김수저(02/03소국) 2	▲김주한(89/93무역) 2	▲도림사 2 ▲도사영(54/50소호) 2	1 11 = (01) 100 111 =	▲사리암 2 ▲ 시청 A L/(02/04분위) 2	▲심기열(81/85회계) 2	
▲김대선(85/89선학) 2 ▲ 김대청(60/77정의) 2	▲김수정(93/97수교) 2 ▲김스제(52/56경제) 2	▲김 준(65/73통계) 2	▲도상열(54/58수학) 2	▲박재원(79/82교원) 2 ▲ 바파주(01/02해위) 2	▲사현스님(02/04불원) 2 ▲사보기	▲심명호(67/76응생) 2 ▲시위버(70/96톤계) 2	▲유승현(02/06국교) 2 ▲ 유사용(97/04저의) 2
▲김대철(69/77정외) 2 ▲ 기더오(97/02이하) 2	▲김순제(52/56경제) 2 ▲김순제(01/05경제) 2	▲김준근(89/96화학) 2 ▲김조하(07/01하게) 2	▲도윤스님(54/58사학) 2 ▲도유흥(00/02해왕) 2	▲박재줄(91/93행원) 2 ▲바대로(71/70경제) 2	▲삼불사 2	▲심원보(79/86통계) 2	▲유시우(87/94정외) 2 ▲ 유야하(70/77경영) 2
▲김덕윤(87/93의학) 2 ▲김덕윤(87/01개만) 2	▲김슬기(01/05경제) 2	▲김준한(97/01회계) 2 ▲김주버(96/03시교) 2	▲도윤호(90/93행원) 2 ▲도인청(95/01사교) 2	▲박재필(71/78경제) 2	▲삼성암 2	▲심향사 2 ▲ 아카네/50/65경제) 2	▲유양훈(70/77경영) 2 ▲ 유명구(00/02경임) 2
▲김덕희(87/91관광) 2	▲김승걸(52/58사학) 2 ▲김승길(90/97경영) 2	▲김중범(86/93식공) 2	▲도인철(85/91산공) 2 ▲도조성(80/01경임) 2	▲박정우(92/94산원) 2	▲서광사 2 ▲ 니법스/50/62경제\ 2	▲안강태(58/65경제) 2	▲유영근(90/92경원) 2
▲김도현(/91불원) 2	▲김승관(80/87경영) 2	▲김직렬(09/ 사원) 2	▲도종석(89/91경원) 2	▲박정인(69/73경제) 2	▲서병수(58/62경제) 2	▲안군선(85/89회계) 2	▲유영만(00/05법학) 2
▲김동대(58/62경제) 2	▲김승기(00/02대원) 2	▲김진근(78/81토목) 2	▲류관주(78/81농학) 2	▲박정훈(83/90경영) 2	▲서석영(60/64농학) 2	▲안달남(83/85행원) 2	▲유영식(55/61법학) 2
▲김동승(89/91행원) 2	▲김신중(87/95회계) 2	▲김진삼(85/92경제) 2	▲류근선(78/85회계) 2	▲박종구(78/80조경) 2	▲서석일(00/01사원) 2	▲안병수(58/62경제) 2	▲유영효(57/62경제) 2
▲김동영(92/94행원) 2	▲김양태(85/92무역) 2	▲김진수(78/85행정) 2	▲류병태(78/82체교) 2	▲박종부(77/81국교) 2	▲서영섭(79/86회계) 2	▲안병조(63/70경제) 2	▲유윤철(68/72경영) 2
▲김동완(64/72연영) 2	▲김연대(75/82경영) 2	▲김진수(82/89체교) 2	▲류봉규(73/75농학) 20	▲박종열(81/83행원) 2	▲서원사 2	▲ 안상용(85/90행원) 2	▲유태선(02/06체교) 2
▲김동욱(74/78농생) 2	▲김연석(67/71수학) 2	▲김진영(79/81전자) 2	▲류승한(82/86지교) 2	▲박종일(92/94행원) 2	▲서윤하(82/90법학) 2	▲안세영(64/68화학) 2	▲유호열(53/57농학) 2
▲김동원(60/64정치) 2	▲김연호(64/68경영) 2	▲김진욱(84/88회계) 2	▲류영연(71/76국교) 2	▲박종철(98/00문원) 2	▲서일석(77/81사교) 2	▲ 안수병(56/60법학) 2	▲유환식(54/57경제) 2
▲김동익(61/65식공) 2	▲김영균(81/88전기) 2	▲김진원(61/65경영) 2	▲류윤현(71/78경영) 2	▲박종호(97/99경원) 2	▲서재하(61/65국문) 2	▲안재권(78/84토목) 2	▲윤석재(70/74경영) 2
▲김동인(62/67화학) 2	▲김영기(78/85화공) 2	▲김진철(69/72무역) 2	▲류재희(72/75국문) 2	▲ 박준수(03/04불문) 2	▲서종록(68/72수학) 2	▲안정구(70/77과교) 2	▲윤성철(77/84회계) 2
▲김동주(65/72상학) 2	▲김영기(84/91경영) 2	▲김차대(66/73국문) 2	▲마곡사 2	▲박준승(80/87임학) 2	▲서정준(82/86경영) 2	▲안정은(98/02행정) 2	▲윤성환(05/07사원) 2
▲김동준(79/86경영) 2	▲김영배(51/55국문) 2	▲김찬동(96/98경원) 2	▲마별성(83/90산공) 2	▲박지영(96/03행정) 2	▲서창식(60/64상학) 2	▲안창영(60/64임학) 2	▲윤승식(90/92대원) 2

2

▲임태규(56/59경제) 2

▲자성스님(92/93사원) 2

▲장경웅(61/65상학) 2

▲장광수(80/84경영) 2

▲장규환(59/63경제) 2

▲장근석(82/86물리) 2

▲장기환(92/98윤리) 2

▲장두혁(01/05체교) 2

▲장명근(58/64법학) 2

▲장명수(01/03사원) 2

▲장보선(87/89교원) 2

▲장봉기(87/89교원) 2

▲장석율(70/76식공) 2

▲장선춘(64/66식공) 2

▲장성원(97/99법학) 2

▲장소천(86/90교육) 2

▲장송수(88/90언원) 2

▲장원동(93/94사원) 2

▲장지웅(66/73경제) 2

▲장현석(87/91회계) 2

▲전광오(03/06기계) 2

▲전문순(81/88회계) 2

▲전사윤(58/64정치) 2

▲전수식(56/63법학) 2

▲전수오(02/06경영) 2

▲전영삼(87/94토목) 2

▲전우람(05/09체교) 2

▲전위미(82/86회계) 2

▲전전홍(61/65경영) 2

▲전정도(04/ 불원) 2

▲전정란(81/85농생) 2

▲전중구(61/64임학) 2

▲전철수(74/81연영) 2

▲전평수(92/96경영) 2

▲전형배(79/ 전산) 2

▲정갑동(69/73영문) 2

▲정경은(89/93사학) 2

▲정경환(86/93무역) 2

▲정구인(62/64국문) 2

▲정규상(59/63경제) 2

▲정기석(56/59사학) 2

▲정기춘(78/82회계) 2

▲정기태(63/65상학) 2

▲정남균(68/72공경) 2

▲정대연(64/68연영) 2

▲정동민(67/75경영) 2

▲정란이(90/94농생) 2

▲정만영(59/64경제) 2

▲정병주(83/87경영) 2

▲정병철(73/79건축) 2

▲정상학(94/96불원) 2

▲정석원(63/65상학) 2

▲정수웅(64/71경제) 2

▲정순구(70/77공경) 2

▲정순덕(75/80국교) 2

▲정순봉(53/59법학) 2

▲정영석(88/95회계) 2

▲정영자(03/06사원) 2

▲정영진(84/88전산) 2

▲정운섭(57/61사학) 2

▲정유식(86/92법학) 2

▲정의완(74/78사교) 2

▲정이조(79/81경원) 2

▲정일주(96/98문원) 2

▲정일준(75/79경제) 2

▲정종빈(81/87일문) 2

▲정진태(83/86경원) 2

▲정차술(86/88행원) 2

▲정찬교(72/79무역) 2

▲정창근(61/65농학) 2

▲정창숙(94/96교원) 2

▲정창시(80/85회계) 2

▲정창준(68/72경행) 2

2

2

▲장안사

▲전등사

▲자비사

```
▲윤여섭(73/77무역) 2
                   ▲이상현(64/68경행) 2
                                      ▲이종근(95/02경제) 2
▲윤영길(61/65상학) 2
                   ▲이석구(86/90경제) 2
                                      ▲이종만(05/09통상) 2
▲윤장근(65/71법학) 2
                   ▲이석도(65/74경제) 2
                                      ▲이종복(55/59불교) 2
                   ▲이석봉(86/87행원) 2
                                      ▲이종서(71/75법학) 2
▲윤정식(91/99농생) 2
▲윤종욱(79/84통계) 2
                   ▲이석준(01/08경제) 2
                                      ▲이종수(87/91정외) 2
▲윤종육(81/82행원) 2
                   ▲이석준(55/59정치) 2
                                      ▲이종연(85/92농경) 2
▲윤준옥(02/04불원) 2
                   ▲이선래(94/96행원) 2
                                      ▲이종찬(56/60국문) 2
▲윤찬희(78/85화공) 2
                   ▲이선주(90/96의학) 2
                                      ▲이종찬(64/70정외) 2
▲윤천수(91/93불원) 2
                   ▲이성규(89/91행원) 2
                                      ▲이종헌(46/50국문) 2
▲윤천식(64/69경제) 2
                   ▲이성민(92/99전자) 2
                                      ▲이주영(80/81경원) 2
                   ▲이성원(80/86공경) 1
▲윤학섭(84/92경영) 2
                                      ▲이주팔(80/84전산) 2
▲윤화석(70/74물리) 2
                   ▲이성철(94/00경영) 2
                                      ▲이주환(55/61정치) 2
                   ▲이성희(62/69행정) 2
                                      ▲이 준(56/60생물) 2
▲윤 환(66/70사학) 2
▲은민수(83/87전기) 2
                   ▲이세숙(96/00수교) 2
                                      ▲이준걸(91/94행원) 2
▲은선사
             2
                   ▲이세운(62/69농학) 2
                                      ▲이준재(71/78화공) 2
▲은세곤(57/61사학) 2
                   ▲이세준(60/64정치) 2
                                      ▲이중량(55/58정치) 2
▲은적사
             2
                   ▲이수남(62/69경제) 2
                                      ▲이지은(95/99영문) 2
▲은하사
             2
                   ▲이수용(78/82화학) 2
                                      ▲이지혁(96/03컴공) 2
▲음용덕(93/95행원) 2
                   ▲이수팔(65/72경영) 2
                                      ▲이진욱(93/98법학) 2
                   ▲이숙경(81/85화학) 2
                                      ▲이진한(86/96경영) 2
▲이건선(65/72임학) 2
▲이경숙(89/93무역) 2
                   ▲이슬기(00/05중문) 2
                                      ▲이진혁(75/79화학) 2
▲이경우(48/52국문) 2
                   ▲이승박(79/85한의) 2
                                      ▲이진형(88/94사회) 2
                   ▲이승우(00/02문원) 2
                                      ▲이진호(75/82체교) 2
▲이경우(58/64경제) 2
▲이경자(69/71무역) 2
                   ▲이승준(84/88일문) 2
                                      ▲이창구(61/65연극) 2
▲이경자(94/96불원) 2
                   ▲이승진(91/95정외) 2
                                      ▲이창근(72/76체교) 2
▲이경재(65/72상학) 2
                   ▲이승창(62/69상학) 2
                                      ▲이창섭(61/67상학) 2
▲이경찬(61/65법학) 2
                   ▲이승철(79/83경행) 2
                                      ▲이창섭(75/82경영) 2
▲이경회(64/71법학) 2
                   ▲이승후(88/90경원) 2
                                      ▲이창진(02/06불교) 2
                   ▲이시우(61/03정치) 2
▲이계연(83/87가교) 2
                                      ▲이천종(74/81농학) 2
                   ▲이신철(56/63법학) 2
                                      ▲이철희(79/83전기) 2
▲이광열(89/91행원) 2
▲이광윤(76/80토목) 2
                   ▲이신호(88/91경원) 2
                                      ▲이춘삼(82/89회계) 2
▲이규용(87/94경영) 2
                   ▲이양례(97/99경원) 2
                                      ▲이춘재(89/93경영) 2
▲이규헌(61/69경제) 2
                   ▲이연숙(78/82사교) 2
                                      ▲이충렬(77/84물리) 2
▲이규형(63/68행정) 2
                   ▲이영규(71/75수학) 2
                                      ▲이충우(59/66상학) 2
                                      ▲이태재(79/86경영) 2
▲이균형(59/65정치) 2
                   ▲이영길(99/01행원) 2
▲이근배(63/64불교) 2
                   ▲이영륜(74/81법학) 2
                                      ▲이태철(76/80전산) 2
▲이기근(76/83수학) 2
                   ▲이영범(82/89농학) 2
                                      ▲이택권(87/91불교) 2
                                      ▲이평래(64/68불교) 2
▲이기무(76/83수학) 2
                   ▲이영석(59/63국문) 2
▲이기출(81/87경영) 2
                   ▲이영석(72/79농경) 2
                                      ▲이풍규(59/64법학) 2
                                      ▲이필구(65/72응생) 2
▲이기호(86/93영문) 2
                   ▲이영재(81/88법학) 2
▲이길자(74/78승가) 2
                   ▲이영준(55/59법학) 2
                                      ▲이학문(55/61경제) 2
▲이남영(94/96행원) 2
                   ▲이영환(88/93경원) 2
                                      ▲이학설(56/61법학) 2
▲이남진(87/94회계) 2
                   ▲이영희(01/03불원) 2
                                      ▲이한구(77/84건축) 2
▲이대수(92/93행원) 2
                   ▲이완규(05/07문원) 2
                                      ▲이한태(78/82화학) 2
▲이대영(93/95행원) 2
                   ▲이용구(71/75농학) 2
                                      ▲이해규(57/59법학) 2
▲이덕수(57/59법학) 2
                   ▲이용국(74/78경영) 2
                                      ▲이향수(83/87회계) 2
▲이동명(82/86불교) 2
                   ▲이용석(73/80정외) 2
                                      ▲이헌구(78/82체교) 2
▲이동일(87/89행원) 2
                   ▲이용식(85/91정외) 2
                                      ▲이현삼(83/90지교) 2
                   ▲이용정(89/94회계) 2
                                      ▲이현수(54/61임학) 2
▲이동형(76/80공경) 2
▲이두현(85/92통계) 2
                   ▲이원장(91/93경원) 2
                                      ▲이현준(00/07전기) 2
▲이득현(72/79국교) 2
                   ▲이윤철(88/95경영) 2
                                      ▲이형렬(81/88농생) 2
▲이 련(64/71국문) 2
                   ▲이은섭(58/64경제) 2
                                      ▲이형표(61/63국문) 2
▲이만수(81/85체교) 2
                   ▲이은준(59/61법학) 2
                                      ▲이화섭(64/68경행) 2
▲이맹우(91/93불원) 2
                   ▲이은집(79/82교원) 2
                                      ▲이환균(67/71도공) 2
▲이명수(59/61법학) 2
                   ▲이의용(95/97경원) 2
                                      ▲이환근(82/89수교) 2
▲이문경(88/94건축) 2
                   ▲이인선(72/76화공) 2
                                      ▲이환섭(71/75경행) 2
▲이문복(88/90행원) 2
                                      ▲이 훈(82/89수학) 2
                   ▲이인형(76/82임학) 2
                   ▲이일환(87/89행원) 2
▲이범주(96/99기계) 2
                                      ▲이훈상(88/92법학) 2
▲이범찬(82/84행원) 2
                                      ▲인형식(61/65영문) 2
                   ▲이장걸(56/62사학) 2
▲이병일(95/97행원) 2
                   ▲이장희(61/65농학) 2
                                      ▲일선스님(95/97불원) 2
                   ▲이재경(85/89연영) 2
                                      ▲임경섭(57/61사학) 2
▲이보영(71/75수교) 2
                   ▲이재국(81/87건축) 2
                                      ▲임구영(83/90법학) 2
▲이봉근(56/60법학) 2
▲이부성(63/67경제) 2
                   ▲이재동(97/98불원) 2
                                      ▲임무혁(78/83회계) 2
▲이삼봉(57/64사학) 2
                   ▲이재면(77/81임학) 2
                                      ▲임애란(82/86가교) 2
▲이상동(85/89법학) 2
                   ▲이재봉(65/68물리) 2
                                      ▲임영수(71/75무역) 2
▲이상로(79/86전산) 2
                                      ▲임우석(01/05경영) 2
                   ▲이재술(77/85행정) 2
                                      ▲임우택(82/89경영) 2
▲이상무(64/71법학) 2
                   ▲이재식(73/80건축) 2
                   ▲이재원(58/64법학) 2
                                      ▲임인규(78/81승가) 2
▲이상문(64/68행정) 2
▲이상미(66/68경제) 10
                   ▲이재일(80/87회계) 2
                                      ▲임일남(79/81교원) 2
▲이상미(66/68경제) 2
                   ▲이재항(64/71경제) 2
                                      ▲임정훈(86/93영문) 2
                   ▲이정곤(54/58법학) 2
▲이상봉(83/87산공) 2
                                      ▲임종철(79/86회계) 2
▲이상식(98/00행원) 2
                   ▲이정미(80/85영문) 2
                                      ▲임종홍(86/88경원) 2
                   ▲이정분(00/03불원) 2
                                      ▲임주현(06/09생명) 2
▲이상연(92/94불원) 2
                   ▲이정형(87/94행정) 2
                                      ▲임중규(83/90정외) 2
▲이상용(75/81건축) 2
                                      ▲임지수(82/86경제) 2
▲이상일(67/71식공) 2
                   ▲이정훈(60/64법학) 2
▲이상철(71/78토목) 2
                   ▲이종국(54/57영문) 2
                                      ▲임춘순
                                                    2
```

동국대 사범대부중 회비 일괄납부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 동문 17명이 지난 5월 21일 본회에 개인 연회비 2만원 씩, 모두 34만원을 단체로 보내왔다.

■회비 납부자 명단 △고문(교장) 이상재(76/80국사교육, 본회 이사, 개인납부) △고문(교감) 배용만(72/76체교, 본회이사 개인납부)

△윤혜영(73/77국교) △서행원(78/83 국사교육) △김기현(79/84국사교육) △안주희(81/85불교) △한형숙(81/85 영문) △안치웅(81/88사교) △문명은 (82/86국교) △동명희(83/87농생)

△김덕진(90/94불교) △김상민 (92/99응용생물) △한은정(94/99국민 윤리)△이지은 (95/99영문) △선은호 (96/03화학) △박인수(98/04수교)

△정은주(00/04국교)△장영호(99/03 불교) △이상훈(05/08교원)

```
▲정춘덕(55/60법학) 2
                   ▲주상길(98/99경원) 2
                                       ▲최종열(82/86토목) 2
▲정태수(69/71법학) 2
                   ▲주웅식(99/02행원) 2
                                       ▲최종하(68/75경영) 2
▲정태수(72/73행원) 2
                   ▲주정호(92/96회계) 2
                                       ▲최중경(94/95사원) 2
                                       ▲최중열(56/62정치) 2
▲정하윤(06/09대원) 2
                   ▲주해권(92/94행원) 2
▲정학주(64/72법학) 2
                   ▲죽림암
                                       ▲최지성(88/92경영) 2
▲정한영(94/96행원) 2
                   ▲지규원(71/78정외) 2
                                       ▲최 진(72/81국교) 2
▲정해옥(02/05사원) 2
                                       ▲최 철(69/76수학) 2
                   ▲지용진(82/87경행) 2
▲정해윤(77/81무역) 2
                   ▲지응종(76/80건축) 2
                                       ▲최철영(64/68행정) 2
                   ▲지정구(56/58법학) 2
▲정 헌(87/91산공) 2
                                       ▲최홍규(61/65연극) 2
▲정 현(91/97화학) 2
                                  2
                                       ▲최흥길(58/62경제) 2
                   ▲진관사
▲정현정(91/95행정) 2
                                       ▲최희륜(60/64생물) 2
                   ▲진만스님(77/81승가) 2
▲정호영(78/85건축) 2
                   ▲진성기(99/01행원) 2
                                       ▲최희주(04/06통상) 2
▲정효현(70/73경영) 2
                   ▲진성스님(76/80승가) 2
                                       ▲칠불사
▲정훈열(82/89법학) 2
                   ▲진재탁(67/71위생) 2
                                       ▲칠장사
▲정흥진(95/97불원) 2
                   ▲진홍식(59/67법학) 2
                                       ▲태충명(00/02불원) 2
▲조경석(61/64국문) 2
                   ▲차대식(97/98사원) 2
                                       ▲표대규(86/93정외) 2
▲조경욱(81/85통계) 2
                   ▲차대영(89/96경행) 2
                                       ▲하건진(56/63영문) 2
▲조기연(69/76통계) 2
                   ▲채무홍(58/62농학) 2
                                       ▲하림스님(88/96선학) 2
▲조남기(83/87경영) 2
                   ▲채수일(57/61정치) 2
                                       ▲하문수(55/63경제) 2
▲조동희(57/64법학) 2
                   ▲천병일(62/67화학) 2
                                       ▲하민호(78/85전자) 2
▲조만수(70/77경영) 2
                   ▲철은스님(86/88교원) 2
                                       ▲하상윤(81/88사교) 2
▲조만식(81/87건축) 2
                   ▲청림사
                                  2
                                       ▲하상윤(83/85행원) 2
▲조명준(77/81전자) 2
                   ▲청운스님(93/95<del>불</del>원) 2
                                       ▲하성주(87/91경영) 2
▲조문식(02/08전자) 2
                   ▲최경봉(57/62물리) 2
                                       ▲하정열(01/03행원) 2
▲조병구(67/74식공) 2
                   ▲최경수(92/97회계) 2
                                       ▲하지연(97/02일문) 2
▲조병권(85/88경원) 2
                   ▲최관호(84/91경행) 2
                                       ▲하혜순(92/94불원) 2
▲조병호(61/66정치) 2
                   ▲최광우(83/87화학) 2
                                       ▲학도암
▲조부연(88/95토목) 2
                   ▲최금남(79/83회계) 2
                                       ▲학명스님(04/06불원) 2
▲조선주(81/83행원) 2
                   ▲최기영(82/94법학) 2
                                       ▲학방암
▲조성제(95/97대원) 2
                   ▲최낙석(59/65경제) 2
                                       ▲한경원(49/52경제) 2
▲조성현(84/91사회) 2
                   ▲최덕규(79/83무역) 2
                                       ▲한규동(79/80행원) 2
▲조성호(84/91미술) 2
                   ▲최덕기(95/97행원) 2
                                       ▲한도수(58/61경제) 2
▲조성환(92/99법학) 2
                   ▲최동욱(76/80화공) 2
                                       ▲한성권(80/84경영) 2
▲조숙영(85/89국사교) 2
                   ▲최동지(75/82토목) 2
                                       ▲한송욱(66/70임학) 2
▲조승우(90/94회계) 2
                   ▲최동호(65/69농학) 2
                                       ▲한영수(76/83수학) 2
▲조양훈(69/73영문) 2
                   ▲최무정(80/82행원) 2
                                       ▲한영원(81/87회계) 2
▲조영모(83/87경영) 2
                   ▲최병옥(71/78통계) 2
                                       ▲한예석(57/64경제) 2
▲조영환(71/75임학) 2
                   ▲최봉석(92/99정외) 2
                                       ▲한을희(70/77경영) 2
▲조왕묵(84/86행원) 2
                   ▲최삼범(90/98물리) 2
                                       ▲한인만(64/72국문) 2
▲조인희(69/73행정) 2
                   ▲최상기(74/78전산) 2
                                       ▲한재수(73/77수교) 2
▲조일권(55/62법학) 2
                   ▲최상범
                                       ▲한주현(74/78식공) 2
                                  2
▲조재문(65/72경영) 2
                   ▲최선우(69/73경행) 2
                                       ▲한진석(72/80전자) 2
                                       ▲한진희(78/83무역) 2
▲조정은(03/07역사교) 2
                   ▲최성호(81/89법학) 2
                   ▲최성훈(03/07전자) 2
                                       ▲한철의(80/88전산) 2
▲조준수(87/89경원) 2
                   ▲최순임(81/83회계) 2
▲조지환(55/58경제) 2
                                       ▲향적스님(78/82승가) 2
▲조진권(06/08사원) 2
                   ▲최승구(61/65법학) 2
                                       ▲향천사
                                                     2
▲조철구(65/72수학) 2
                   ▲최영대(00/01사원) 2
                                       ▲허 걸(68/72도공) 2
▲조충미(81/85교육) 2
                   ▲최영두(61/65화학) 2
                                       ▲허관식(78/85행정) 2
▲조통달(94/97문원) 2
                   ▲최영숙(96/98영문) 2
                                       ▲허동화(55/57법학) 2
▲조한석(06/08경영) 2
                   ▲최영안(63/65국문) 2
                                       ▲허병두(57/60경제) 2
▲조한운(61/65상학) 2
                   ▲최예형(53/57경제) 2
                                       ▲허장민(64/68정외) 2
▲조현수(60/64농경) 2
                   ▲최완철(59/61경제) 2
                                       ▲허 증(92/93행원) 2
                   ▲최용석(96/98기계) 2
▲조현철(77/84화공) 2
                                       ▲허창식(75/82영문) 2
▲조 홍(76/80경제) 2
                   ▲최은하(96/98물리) 2
                                       ▲현승유(65/72경제) 2
▲조 활(68/72수자원) 2
                   ▲최익달(52/56법학) 2
                                       ▲현영대(81/88건축) 2
▲조효은(91/98화공) 2
                   ▲최인규(79/86통계) 2
                                       ▲현융기(81/89행정) 2
▲조휘문(65/67상학) 2
                   ▲최인택(84/90건축) 2
                                       ▲현종스님
▲주리원(83/87화학) 2
                   ▲최일상(66/70경제) 2
                                       ▲현진스님(83/87선학) 2
▲주명환(96/98행원) 2
                   ▲최재오(57/61법학) 2
                                       ▲현창희(77/83회계) 2
```

▲혜은사 2 ▲홍광표(92/94행원) 2 ▲홍기운(82/86경영) 2 ▲홍기표(58/64정치) 2 ▲홍두표(74/78체교) 2 ▲홍면유(68/72자동) 2 ▲홍미화(82/86교육) 2 ▲홍성표(00/01사원) 2 ▲홍성호(80/84무역) 2 ▲홍성훈(78/85회계) 2 ▲홍승범(98/06정보) 2 ▲홍영자(64/66국문) 2 2 ▲홍의식(86/94경영) 2 ▲홍익표(73/80건축) 2 2 ▲홍 정(01/09행정) 2 ▲홍종길(82/86경영) 2 ▲홍지승(94/98행정) 5 ▲황규철(80/87회계) 2 ▲황만성(81/85경영) 2 ▲황병향(03/05불문) 2 ▲황보성(99/02국교) 2 ▲황봉연(82/86토목) 2 ▲황삼규(66/73행정) 2 ▲황선구(66/73통계) 2 ▲황선욱(98/06회계) 2 ▲황성연(66/73상학) 2 2 ▲황영규(94/95사원) 2 ▲황용인(85/92교육) 2 ▲황윤걸(60/63임학) 2 ▲황윤철(95/98정보) 2 ▲황재춘(89/90행원) 2 ▲황조연(70/74경영) 2 ▲황종환(96/03행정) 2 ▲황태영(83/86행원) 2 ▲황화준(89/90사원) 2 ▲흥국사 2

발전기금

▲법운스님(95/97불원) 10

CMS 이체

장학기금

▲김명길(70/74공업경영) 5만×5회=25만원 (누계35만원) ▲김철완(88/96법학) 10만×5회=50만원(누계 70만원) ▲안한상(66/70국문) 1만×5회=5만원 (누계 7만원)

이사회비

▲나채문(99/02산원) 1만×4회=4만원(누계 4만원)

평생회비

▲이은종(63/68상학) 2만×5회=10만원(누계 14만원)